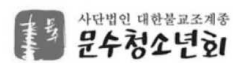


# 2025 강릉시 청소년 생활실태 조사

책임연구원 : 이진규(해피 AI 대표)

공동연구원 : 이수연, 이가영(강릉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 편이 필요한 순간  
청소년 **1388** 강릉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부설)강릉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목 차

<b>I. 서론</b> .....	<b>1</b>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나. 강릉시 환경분석 .....	2
<b>II. 연구개요</b> .....	<b>8</b>
가. 연구대상 .....	8
나. 측정도구 .....	9
1) 위험요인 .....	9
2) 보호요인 .....	10
3) 위기경험 (위기결과) .....	11
다. 분석 방법 .....	12
<b>III. 연구결과</b> .....	<b>13</b>
가. 일반 청소년 및 위기(가능)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요인 .....	13
1) 성별 .....	13
2) 소속기관 및 학교 .....	14
3) 거주 지역 .....	15
4) 거주 형태(보호자 유형) .....	16
5) 부모의 국적 .....	17
6) 가정경제 수준 .....	18
7) 국가나 단체의 지원 내용 .....	19
8) 부모의 물질적·정서적 지원 정도 .....	20

9) 지지 자원의 수 .....	21
10) 청소년 지원 사업·기관 인지·이용 여부 .....	22
11) 원하는 상담 형태 .....	24
12) 상담에 대한 기대 .....	25
나. 일반 청소년과 위기 청소년의 위험·보호요인, 위기 경험 비교 .....	27
1) 위험요인 .....	27
2) 보호요인 .....	30
3) 위기 경험(위기 결과) .....	32
다. 성별에 따른 위험요인, 보호요인, 위기경험 비교 .....	56
1) 성별에 따른 위험 요인 비교 .....	56
2) 성별에 따른 보호 요인 비교 .....	58
3) 성별에 따른 위기 경험 비교 .....	59
라. 소속기관에 따른 위험요인,보호요인 위기경험 비교 .....	71
1) 소속기관에 따른 위험요인 비교 .....	71
2) 소속기관에 따른 보호요인 비교 .....	72
3) 소속기관에 따른 위기경험 비교 .....	73
<b>IV. 요약 .....</b>	<b>84</b>
가. 연구 참여 위기 청소년 실태 .....	84
나. 일반 청소년과 위기 청소년의 위험·보호요인, 위기 경험 비교 .....	85
다. 성별에 따른 위험요인, 보호요인, 위기경험 비교 .....	86
라. 소속기관에 따른 위험요인, 보호요인 위기경험 비교 .....	86
<b>V. 논의 및 제언 .....</b>	<b>88</b>
<b>참고문헌 .....</b>	<b>91</b>
<b>부 록 .....</b>	<b>92</b>

## 표 목 차

<표 I-1> 연도 및 행정구역별 강릉시 인구변화 .....	3
<표 I-2> 2025년 행정구역별 인구와 청소년 수 .....	4
<표 I-3> 강릉시 청소년 인구 현황 .....	5
<표 I-4> 강릉시 청소년 연령별 인구 현황 .....	6
<표 I-5> 초·중·고 재학생 현황 .....	6
<표 I-6> 초·중·고 학교 현황 .....	7
<표 II-1> 위기수준 결정 준거 .....	8
<표 II-2> 위험요인에 따른 청소년 수 .....	9
<표 II-3> 위험요인 하위요소 및 신뢰도 .....	10
<표 II-4> 보호요인 하위요인 및 신뢰도 .....	10
<표 II-5> 위기경험 하위요인 및 문항구성 .....	11
<표 III-1> 일반 청소년 및 위기(가능) 청소년 성별 분포 .....	13
<표 III-2> 일반 청소년 및 위기(가능) 청소년 소속기관 분포 .....	14
<표 III-3> 일반 청소년 및 위기(가능) 청소년 학년 분포 .....	15
<표 III-4> 일반 청소년 및 위기(가능) 청소년 거주지역 분포 .....	16
<표 III-5> 일반 청소년 및 위기(가능) 청소년 거주 형태(보호자 유형) .....	17
<표 III-6> 일반 청소년 및 위기(가능) 청소년 부모국적 분포 .....	18
<표 III-7> 일반 청소년 및 위기(가능) 청소년 가정경제수준 분포 .....	19

<표 Ⅲ-8> 일반 청소년 및 위기(가능) 청소년 국가·단체 지원내용 분포 .....	20
<표 Ⅲ-9> 일반 청소년 및 위기(가능) 청소년 물질적·정서적 지원 분포 .....	21
<표 Ⅲ-10> 일반 청소년 및 위기(가능) 청소년 지지 자원 수 분포 .....	22
<표 Ⅲ-11> 일반 청소년 및 위기(가능) 청소년 청소년 지원 사업·기관 인지 분포 .....	23
<표 Ⅲ-12> 일반 청소년 및 위기(가능) 청소년 청소년지원사업·기관 이용 분포 .....	24
<표 Ⅲ-13> 일반 청소년 및 위기(가능) 청소년 선호 상담형태 분포 .....	25
<표 Ⅲ-14> 일반 청소년 및 위기(가능) 청소년 선호 상담형태 분포 .....	26
<표 Ⅲ-15> 일반 청소년 및 위기(가능) 청소년 위험요인 평균 비교 .....	28
<표 Ⅲ-16> 일반 청소년 및 위기(가능) 청소년 위험요인-문제가족원 및 비행친구 비교 .....	29
<표 Ⅲ-17> 일반 청소년 및 위기(가능) 청소년 보호요인 평균 비교 .....	30
<표 Ⅲ-18> 일반 청소년 및 위기(가능)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전체 응답 빈도 .....	32
<표 Ⅲ-19> 일반 청소년 및 위기(가능)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전체 응답 빈도 .....	33
<표 Ⅲ-20> 일반 청소년 및 위기(가능) 청소년 약물 및 도박 전체 응답 빈도 .....	35
<표 Ⅲ-21> 일반 청소년 및 위기(가능) 청소년 약물 및 도박 위기경험 비교 .....	36
<표 Ⅲ-22> 일반 청소년 및 위기(가능) 청소년 학교폭력 피해 전체 응답 빈도 .....	37
<표 Ⅲ-23> 일반 청소년 및 위기(가능) 청소년 약물 및 도박 위기경험 비교 .....	38
<표 Ⅲ-24> 일반 청소년 및 위기(가능) 청소년 학교폭력 가해 전체 응답 빈도 .....	39
<표 Ⅲ-25> 일반 청소년 및 위기(가능) 청소년 약물 및 도박 위기경험 .....	40
<표 Ⅲ-26> 일반 청소년 및 위기(가능) 청소년 비행 전체 응답 빈도 .....	41
<표 Ⅲ-27> 일반 청소년 및 위기(가능) 청소년 약물 및 도박 위기경험 .....	42
<표 Ⅲ-28> 일반 청소년 및 위기(가능) 청소년 성문제 전체 응답 빈도 .....	43
<표 Ⅲ-29> 일반 청소년 및 위기(가능) 청소년 성문제 위기경험 비교 .....	44
<표 Ⅲ-30> 일반 청소년 및 위기(가능) 청소년 학대 전체 응답 빈도 .....	45
<표 Ⅲ-31> 일반 청소년 및 위기(가능) 청소년 학대 위기경험 비교 .....	46

<표 Ⅲ-32> 일반 청소년 및 위기(가능) 청소년 자살 전체 응답 빈도 .....	47
<표 Ⅲ-33> 일반 청소년 및 위기(가능) 청소년 자살 위기경험 비교 .....	48
<표 Ⅲ-34> 일반 청소년 및 위기(가능) 청소년 자해 전체 응답 빈도 .....	49
<표 Ⅲ-35> 일반 청소년 및 위기(가능) 청소년 자해 위기 경험 비교 .....	51
<표 Ⅲ-36> 일반 청소년 및 위기(가능) 청소년 가출 전체 응답 빈도 .....	52
<표 Ⅲ-37> 일반 청소년 및 위기(가능) 청소년 가출 기간 전체 응답 빈도 .....	53
<표 Ⅲ-38> 일반 청소년 및 위기(가능) 청소년 가출 위기 경험 비교 .....	53
<표 Ⅲ-39> 일반 청소년 및 위기(가능) 청소년 학업중단(무단결석) 전체 응답 빈도 .....	54
<표 Ⅲ-40> 학업중단(무단결석) 청소년 및 학업중단숙려제 경험 청소년 비교 .....	54
<표 Ⅲ-41> 아르바이트·직업훈련기관·직장생활 경험이 있는 청소년 분포 .....	55
<표 Ⅲ-42> 성별에 따른 위험요인 평균 비교 .....	57
<표 Ⅲ-43> 성별에 따른 위험요인(문제가족원 · 비행친구) 비교 .....	57
<표 Ⅲ-44> 성별에 따른 보호요인 평균 비교 .....	59
<표 Ⅲ-45> 성별에 따른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위기경험 비교 .....	60
<표 Ⅲ-46> 성별에 따른 약물 및 도박 위기경험 비교 .....	61
<표 Ⅲ-47> 성별에 따른 학교폭력 피해 위기경험 비교 .....	62
<표 Ⅲ-48> 성별에 따른 학교폭력 가해 위기경험 비교 .....	63
<표 Ⅲ-49> 성별에 따른 비행 위기경험 비교 .....	64
<표 Ⅲ-50> 성별에 따른 성 문제 위기경험 비교 .....	65
<표 Ⅲ-51> 일반 청소년 및 위기(가능) 청소년 학대 위기경험 비교 .....	66
<표 Ⅲ-52> 성별에 따른 자살 위기경험 비교 .....	67
<표 Ⅲ-53> 성별에 따른 자해 위기경험 비교 .....	68
<표 Ⅲ-54> 성별에 따른 청소년 가출 경험 비교 .....	69
<표 Ⅲ-55> 성별에 따른 학업중단 청소년 및 학업중단숙려제 경험 청소년 비교 .....	70

<표 Ⅲ-56> 소속기관에 따른 위험요인 비교 .....	71
<표 Ⅲ-57> 소속기관에 따른 약물 및 도박 위기경험 비교 .....	72
<표 Ⅲ-58> 소속기관에 따른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위기경험 비교 .....	73
<표 Ⅲ-59> 소속기관에 따른 약물 및 도박 위기경험 비교 .....	74
<표 Ⅲ-60> 소속기관에 따른 학교폭력 피해 위기경험 비교 .....	75
<표 Ⅲ-61> 소속기관에 따른 학교폭력 가해 위기경험 비교 .....	76
<표 Ⅲ-62> 소속기관에 따른 비행 위기경험 비교 .....	77
<표 Ⅲ-63> 소속기관에 따른 성 문제 위기경험 비교 .....	78
<표 Ⅲ-64> 일반 청소년 및 위기(가능) 청소년 학대 위기경험 비교 .....	79
<표 Ⅲ-65> 소속기관에 따른 자살 위기경험 비교 .....	80
<표 Ⅲ-66> 소속기관에 따른 자해 위기경험 비교 .....	81
<표 Ⅲ-67> 소속기관에 따른 청소년 가출 경험 비교 .....	82
<표 Ⅲ-68> 소속기관에 따른 학업중단 청소년 및 학업중단숙려제 경험 청소년 비교 .....	83

# I. 서론

##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강릉시 관내 청소년이 경험하고 있는 정서·행동·환경적 위기 요인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추진할 상담·정서지원·사례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및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3년 전 실시된 강릉시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위기 요인의 변화 추세를 확인함으로써, 현재 지역 청소년의 상황을 보다 명확하게 진단하고 정책적 대응의 근거를 확보하고자 한다. 최근 청소년 정책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근거 기반 정책수립을 강조하고 있으며(여성가족부 「청소년기본계획」), 지역 단위 실태 분석은 공공서비스의 효과성을 높이는 핵심 기반 자료로 기능한다.

### 2) 연구의 필요성

첫째, 강릉시 청소년 위기 실태에 관한 최근의 공식적 자료는 제한적이며, 우울감·자살 생각·학교부적응·가정 갈등·미디어 과의존 등 다양한 위험 요인의 지역적 편차가 존재할 가능성은 있으나 이를 명확히 확인할 근거는 충분하지 않다. 국가 단위 조사(교육부·질병관리청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서는 위기 관련 지표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강릉시 청소년의 특성·분포·심각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역 맞춤형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둘째,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위기 청소년의 조기 발견, 상담, 사례관리 등을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개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 청소년이 경험하는 위험요인과 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수적이다. 현재 운영 중인 프로그램은 전국 공통 매뉴얼 기반이 많아, 지역 실태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셋째, 「청소년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지자체는 지역 실정을 고려한 청소년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함에도, 강릉시 청소년의 정서·행동 문제와 생활환경을 종합적으로 다룬 최신 자료는 충분하지 않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확보되는 자료는 향후 강릉시의 상담·복지·교육 분야 정책 수립과 서비스 개선 방향을 결정하는 데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넷째, 3년 전 강릉시에서 실시한 실태조사(2022년 강릉시청소년생활실태조사)와의 비교는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당시 조사에서 확인된 위험요인, 보호요인, 생활환경 수준은 현재의 변화 정도를 판단할 기준선 역할을 한다. 그러나 3년간의 지역사회 변화가 청소년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확정적 자료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번 연구를 통해 두 시점의 데이터를 비교·검토함으로써 위기 수준의 증가 또는 감소, 위험요인의 구조 변화, 지원체계의 효과 등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정책 결정과 프로그램 개선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된다.

다섯째, 청소년의 위기 문제는 가정, 학교, 또래, 지역사회 등 다중환경 요인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러한 요인이 강릉시 청소년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부족하다. 지역 기반 실태조사는 학교 및 지역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 위기 조기 발견 및 사례연계 체계 구축을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강릉시 청소년의 위기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3년 전 조사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변화 추세를 정밀하게 진단함으로써,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프로그램 개발 및 지역 청소년정책의 방향 설정을 위한 근거자료를 마련하는 데 필수적인 조사이다.

## 나. 강릉시 환경분석

### 1) 강릉시 총 인구 현황

2025년 10월 현재 강릉시에는 105,062세대에 206,780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1차 청소년생활실태조사를 했던 2022년 대비 약 4,601명 정도 감소한 수치이다. 현재 강릉시 거주 인구는 출생률 저하에 따른 자연 감소와 젊은층의 수도권 진출 등으로 고령화가 심화 되고 있다. <표 I -1>에 따르면 읍면동별 인구 양극화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왕산면과 교1동을 비교해보면 왕산면의 인구수는 1,509명으로 구역면적 대비

인구가 매우 적은 편이다. 반면 교1동의 경우 인구수는 27,494명으로 왕산면의 18배 이상의 인구가 살고 있다.

<표 I -1> 연도 및 행정구역별 강릉시 인구변화

행정구역별 인구수	2021	2022	2023	2024	2025.10
강릉시	212,965	211,381	209,439	207,731	206,780
주문진읍	16,627	16,430	15,879	15,435	15,380
성산면	3,449	3,487	3,506	3,413	3,361
왕산면	1,574	1,548	1,523	1,509	1,478
구정면	4,225	4,263	4,240	4,145	4,063
강동면	4,223	4,056	3,953	3,794	3,689
옥계면	3,495	3,427	3,342	3,290	3,236
사천면	4,652	4,749	5,060	5,335	5,262
연곡면	6,355	6,305	6,318	6,435	6,306
홍제동	15,169	14,990	14,835	14,365	14,026
중앙동	4,792	4,663	4,483	4,311	4,063
옥천동	3,366	3,282	3,225	3,051	2,953
교1동	25,882	25,599	25,402	25,974	27,494
교2동	7,746	7,600	7,378	8,248	9,596
포남1동	10,448	10,536	10,953	10,518	10,353
포남2동	12,792	12,540	12,277	11,627	11,235
초당동	4,743	4,628	4,541	4,318	4,099
송정동	10,075	9,861	9,782	9,389	9,212
내곡동	16,364	16,615	16,433	18,381	18,022
강남동	17,718	17,392	17,154	16,344	15,837
성덕동	28,067	28,037	27,859	26,742	25,692
경포동	11,203	11,373	11,296	11,107	11,423

자료 : 주민등록 인구통계 통계청 <https://jumin.mois.go.kr/>

## 2) 행정구역별 인구 분포



[그림 I-1] 강릉시 행정구역

2025년 10월 기준 강릉시 행정구역별 청소년 수를 살펴보면 총 청소년(9세~24세)의 인구 27,450명 중 가장 많은 청소년이 거주하고 있는 곳은 교1동이다. 하지만, 강릉시 행정구역별 인구대비 비율이 높은 지역은 경포동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2> 2025년 행정구역별 인구와 청소년 수

구분	세대수	인구수	청소년 (9세~24세)	행정구역별 인구대비 비율(%)
강릉시	105,062	206,780	27,450	13.27
주문진읍	8,850	15,380	1,320	8.58
성산면	1,770	3,361	253	7.52
왕산면	875	1,478	48	3.24
구정면	2,007	4,063	430	10.58
강동면	2,120	3,689	245	6.64
옥계면	1,886	3,236	205	6.33
사천면	2,946	5,262	432	8.2
연곡면	3,429	6,306	617	9.78
흥제동	7,023	14,026	1,993	14.2
중앙동	2,514	4,063	383	9.42
옥천동	1,903	2,953	217	7.34
교1동	12,959	27,494	4,898	17.81
교2동	4,565	9,596	1,324	13.79

구분	세대수	인구수	청소년 (9세~24세)	행정구역별 인구대비 비율(%)
포남1동	5,856	10,353	1,059	10.22
포남2동	6,278	11,235	1,245	11.08
초당동	2,139	4,099	525	12.8
송정동	4,112	9,212	1,267	13.75
내곡동	8,745	18,022	2,811	15.59
강남동	7,948	15,837	1,844	11.64
성덕동	11,684	25,692	4,256	16.56
경포동	5,453	11,423	2,078	18.19

자료 : 주민등록 인구통계 통계청 <https://jumin.mois.go.kr/>

### 3) 청소년 인구 현황

2025년 기준, 우리나라 청소년 인구(9세~24세)는 762만 6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14.8%이다. 이는 1985년 1,397만 5천명에서 40년 만에 절반 가까이 줄어든 수치이며, 2070년에는 총 인구의 8.8%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문화 학생 수는 19만 3,814명(2025년, 전체 학생의 3.8%)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강릉시에 거주하고 있는 9~24세 청소년의 인구는 2025년을 기준으로 27,450명으로 강릉시 총인구(206,780명)의 13.27%를 차지하고 있다. 강릉시 청소년 인구의 비율은 2020년 16.40%, 2021년 15.72%, 2022년 15.03%, 2025년 13.27%로 매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I -3> 강릉시 청소년 인구 현황

		청소년 인구(9~24세)			청소년인구 비율
		계	남	여	
2022	강원	<b>229,410</b>	122,313	107,097	14.92
	강릉	<b>31,863</b>	16,976	14,887	15.03
2023	강원	<b>219,802</b>	116,862	102,940	14.38
	강릉	<b>29,925</b>	15,933	13,992	14.28
2024	강원	<b>212,747</b>	112,851	99,896	14.01
	강릉	<b>28,506</b>	15,236	13,270	13.72
2025	강원	<b>205,736</b>	109,151	96,585	13.63
	강릉	<b>27,450</b>	14,786	12,664	<b>13.27</b>

2025 강릉시청소년생활실태조사

강릉시의 청소년인구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9~14세, 15~19세, 20~24세 청소년 모두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표 I -4>를 살펴보면, 특히 20~24세 청소년의 인구가 감소의 폭이 넓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 -4> 강릉시 청소년 연령별 인구 현황

년도	구분	계	9~14세	15~19세	20~24세
2022	남	<b>18,537</b>	5,518	5,648	7,371
	여	<b>16,450</b>	5,005	5,113	6,332
	계	<b>34,987</b>	10,523	10,761	13,703
2023	남	<b>15,933</b>	5,137	4,737	6,059
	여	<b>13,992</b>	4,760	4,193	5,039
	계	<b>29,925</b>	9,897	8,930	11,098
2024	남	<b>15,236</b>	5,027	4,548	5,661
	여	<b>13,270</b>	4,329	4,127	4,514
	계	<b>28,506</b>	9,656	8,675	10,175
2025	남	<b>14,786</b>	4,871	4,620	5,295
	여	<b>12,664</b>	4,544	4,066	4,054
	계	<b>27,450</b>	9,415	8,686	9,349

4) 재학생 및 학교 수

강릉시 초·중·고에 재학중인 학생 수는 <표 I -5>와 같다.

<표 I -5> 초·중·고 재학생 현황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계	
2020	강원	73,478	37,836	39,806	<b>151,120</b>
	강릉	9,771	5,285	5,673	<b>20,729</b>
2022	강원	71,530	37,922	36,821	<b>146,273</b>
	강릉	9,313	5,219	5,135	<b>19,667</b>
2025	강원	61,371	37,313	36,558	<b>135,242</b>
	강릉	7,994	4,945	4,926	<b>17,865</b>

I. 서론

강릉시 관내 초·중·고등학교 현황은 <표 I-6>과 같다. 2025년 4월 기준 초등학교 37개교 483학급, 중학교는 12개교 196학급, 고등학교는 11개교 216학급, 특수학교 1개교 24학급으로 총 61개교 919학급이 운영되고 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특수학교는 모두 공립학교이며, 고등학교는 일반고와 특목고, 특성화고가 운영되고 있다.

<표 I-6> 초·중·고 학교 현황

구분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계	일반학급	특수학급	
초등학교	37	483	459	24	7,994
중학교	12	196	186	10	4,945
고 등 학 교	일반	8	168	3	4,324
	특목고	1	9	0	156
	특성화고	2	39	2	536
	계	11	216	5	4,926
특수학교	1	24	0	24	125
<b>총</b>	<b>61</b>	<b>919</b>	<b>856</b>	<b>63</b>	<b>17,865</b>

자료 : 교육통계서비스 행정구역별 유치중등 개황

## Ⅱ. 연구개요

### 가.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강릉시 청소년이 어느 정도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집단을 구분하는 과정을 거쳤다. 청소년의 위기수준은 특별한 지원보다는 일반적인 지도가 필요한 정상생활 수준의 일반군에서부터 적극적인 전문상담과 지원이 복합적으로 요구되는 고위험군으로 나눌 수 있다. 위기수준이 높을수록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상태라고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6년 전국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의 준거 설정방법에 따라 '위험요인'에 따른 위기수준을 분류하였다. 이 준거 기준에 따르면 총 4개의 집단(일반군, 잠재적위험군, 위험군, 고위험군)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집단별로 서로 구별되는 특성을 나타낸다. 전체 문항 중 '문제가족원', '비행친구' 등과 관련한 문항을 제외한 31문항의 합산 점수(0~124점)를 사용하여 세부적인 기준을 정립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잠재적위험군, 위험군, 고위험군을 묶어 '위기(가능) 청소년'으로 분류하였으며 이를 일반군의 청소년들과 비교 분석하였다. 위기수준에 대한 상세기준 및 설명은 다음의 <표 Ⅱ-1>에 제시하였으며, <표 Ⅱ-2>에는 위기요인에 따른 청소년 수를 구분하였다.

<표Ⅱ-1> 위기수준 결정 준거

분류	집단명	해당점수	설명
일반 청소년	일반군	0-34	특별한 지원보다는 심리검사, 진로상담 등 5회기 미만으로 개입되는 청소년
위기 (가능) 청소년	잠재적 위험군	35-56	일반적 상담개입이 필요한 청소년 (3개월 미만)
	위험군	57-66	전문상담 서비스 3개월 이하,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고위험군	67-124	전문상담 서비스 3개월 이상, 복합적 서비스가 긴급하게 지원되어야 할 청소년

<표II-2> 위험요인에 따른 청소년 수

구분		n	%
일반 청소년	일반군	762	82.5
위기 (가능) 청소년	잠재적 위험군	161	17.5
	위험군		
	고위험군		
전체		923	100

## 나.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은 성별, 나이, 소속기관 등을 확인하는 인구통계학적 요인과 더불어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 그리고 위기경험(위기결과)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은 개인, 가정, 또래, 지역사회 영역으로 나뉘어 조사되었으며, 위기경험은 청소년들이 실제로 위기행동을 하는지 확인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각 요인별 하위요인과 신뢰도를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위험요인

위험요인은 발달상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평균적으로 높은 특성이나 변인을 말하는 것으로, 위험 요인이 많을수록 위기경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2016). 해당영역은 개인, 가정, 학교, 지역사회, 또래 영역에서 청소년이 어떤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는지 묻는 3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험요인 중 '있다(1점)' 혹은 '없다(0점)'로 응답하는 가정 영역의 '문제가족원'과 또래 영역의 '비행친구'에 해당하는 하위요인의 7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31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5점 리커트 척도(0~4점)로 측정되었다. 영역별 하위요인과 해당 문항 번호, 내적합치도(검사 신뢰도) 결과는 <표 II-3>과 같다.

<표Ⅱ-3> 위험요인 하위요소 및 신뢰도

영역	하위요인	문항수	문항번호	Cronbach's α
개인	우울,불안	8	16,17,18,19,20,21,22,23	0.904
	공격성,충동성,부주의	8	24,25,26,27,28,29,30,31	0.830
가정	부모 간 갈등	2	32,33	0.669
	부모와의 갈등·방임	6	34,35,36,37,38,39	0.813
	문제가족원	3	47,48,49	-
학교	학교생활부적응	4	40,41,42,43	0.739
지역사회	지역사회유해환경	3	44,45,46	0.665
또래	비행친구	4	50,51,52,53	-
총		38	※역문항 없음	

## 2) 보호요인

보호요인은 위험요인에 노출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를 중재하거나 완화시킴으로써 문제행동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요인들을 의미한다. 보호요인 역시 개인, 가정, 학교, 지역사회, 또래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5점 리커트 척도(0~4점)로 응답하였다. 보호요인은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영역별 하위요인과 해당 문항 번호, 내적 합치도(검사 신뢰도) 결과는 <표 Ⅱ-4>와 같다.

<표Ⅱ-4> 보호요인 하위요인 및 신뢰도

영역	하위요인	문항수	문항번호	Cronbach's α
개인	자기존중감·목표의식·적극적대처	5	54,55,56,57,58	0.822
가정	가족의 관심 및 신뢰	3	59,60,61	0.866
또래	친구관계	2	62,63	0.793
학교	교사의 관심 및 관계	2	64,65	0.797
지역사회	지지체계 및 지원프로그램	3	66,67,68	0.775
총		15	※역문항 없음	

### 3) 위기경험 (위기결과)

위기경험은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약물, 도박, 학교폭력, 비행, 성문제, 학대, 자살, 자해, 가출, 학업중단 등과 같은 문제행동이 어떤 비율로 나타나고 있는지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문제행동의 경험여부와 횟수를 특정하기 위해 한달 또는 1년 동안 나타난 위기경험의 횟수를 '전혀 없다', '1번', '2-3번', '주 1-2회', '월 1-2회', '거의 매 일' 등으로 응답하였다. 영역별 하위요인과 해당 문항 번호는 <표 II-5>에 제시되어 있다.

<표II-5> 위기경험 하위요인 및 문항구성

영역	하위요인	문항수	문항번호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5	69,70,71,72,106
약물	술,담배,약물	3	73,74,75
도박	온라인	1	76
학교폭력	학교폭력(피해)	5	77,78,79,80,81
	학교폭력(가해)	5	82,83,84,85,86
비행	갈취,절도,사법적 문제	3	87,88,89
성문제	성매매·성폭력·원치않는 임신(피해)	6	99,100,101,102,103,105
	성문제(가해)	1	104
학대	신체적학대·정서적 학대	5	90,91,92,93,94
자살	자살사고·자살계획·자살시도	3	95,96,97
자해	자해 종류 및 횟수	7	112,113,114,115,116,117,118
가출	가출상태·가출패م·가출횟수 및 기간	4	107,108,110,110-1
학업중단	학업중단숙려제·학업중단경험 및 기간	2	98,109
직장생활경험	직장생활 경험	1	111
총		51	

## 다. 분석 방법

본 연구는 강릉시 청소년의 현황과 상태를 실증적 파악하고 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위기상황 등을 점검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회수된 설문자료를 SPSS 25.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2025년 강릉시 생활실태조사에 응답한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더불어 위기수준에 따른 청소년 집단별 평균 차이 분석(t-test, ANOVA 등) 및 교차분석( $\chi^2$ -test)을 실시하였다.

## Ⅲ. 연구결과

### 가. 일반 청소년 및 위기(가능)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요인

#### 1) 성별

전체 응답자 923명 중 성별 문항 미응답자 5명을 제외한 918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일반 청소년과 위기 청소년 모두에서 여학생이 각각 51.1%, 51.9%로 남학생보다 약간 높은 비율을 보였으나, 두 집단 간 성별 구성 차이는 크지 않았다. 전체 응답자 역시 남학생 48.8%, 여학생 51.2%로 거의 비슷한 분포를 보여 성별 편중이 없는 표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카이제곱 검정 결과  $\chi^2=0.03(p>.05)$ 로 나타나, 일반·위기 집단 간 성별 구성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Ⅲ-1> 일반 청소년 및 위기(가능) 청소년 성별 분포

단위: 명

구분	일반( <i>n</i> =762)		위기( <i>n</i> =161)		전체( <i>n</i> =923)		$\chi^2$
	<i>n</i>	%	<i>n</i>	%	<i>n</i>	%	
남학생	372	48.9	76	48.1	448	48.8	0.03
여학생	388	51.1	82	51.9	470	51.2	
무응답	2	0.26	3	0.33	5	0.54	
전체	762	100	161	100	923	100	

## 2) 소속기관 및 학교

소속기관에 따른 청소년 집단의 분포를 살펴본 결과, 전체 응답자 중 위기 청소년의 경우 중학교 42.86%(69명)와 인문계 고등학교 36.65%(59명)가 다수를 차지했으나, 실업계 고등학교 비율은 11.18%로 일반 청소년(4.59%)보다 두 배 이상 높아 학업 유형의 차이가 확인되었다. 또한 대안학교(1.24%), 검정고시학원(0.62%) 등 비전통적 교육기관 비중도 일반군보다 다소 높았다. 일반 청소년은 중학교 389명(51.05%), 인문계 고등학교 282명(37.01%), 전문계(실업계) 고등학교 35명(4.59%), 대안학교 0.13%, 검정고시학원 0.13%,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해당없음 기관에 소속된 학생은 5.25%, 무응답(1.84%)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는 중학교 49.62%(458명)와 인문계 고등학교 36.95%(341명)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실업계 고등학교는 5.74%(53명)로 나타났다. 대안학교·검정고시학원·해당없음 기관 등은 모두 1~5% 미만의 비교적 낮은 수준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위기 청소년이 일반 청소년에 비해 다양한 학업 경로 및 비정규 교육기관에 속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표 Ⅲ-2> 일반 청소년 및 위기(가능) 청소년 소속기관 분포

단위:명

구분	일반		위기		전체	
	n	%	n	%	n	%
중학교	389	51.05	69	42.86	458	49.62
인문계 고등학교	282	37.01	59	36.65	341	36.95
전문계(실업계 고등학교)	35	4.59	18	11.18	53	5.74
대안학교	1	0.13	2	1.24	3	0.33
검정고시학원	1	0.13	1	0.62	2	0.22
해당없음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40	5.25	9	5.59	49	5.31
무응답	14	1.84	3	1.86	17	1.84
전체	762	100	161	100	923	100

이러한 청소년들의 학년을 확인해본 결과는 다음 <표 Ⅲ-3>과 같다. 일부 학업중단 학생들의 경우 학업을 중단한 학년을 응답하였다.

<표 Ⅲ-3> 일반 청소년 및 위기(가능) 청소년 학년 분포

단위:명

구분	일반		위기		전체	
	n	%	n	%	n	%
초등학교	5	0.66	0	0.00	5	0.54
중학교 1학년	162	21.26	47	29.19	209	22.64
중학교 2학년	321	42.12	52	32.30	373	40.41
중학교 3학년	0	0.00	2	1.24	2	0.22
고등학교 1학년	7	0.92	2	1.24	9	0.98
고등학교 2학년	249	32.68	55	34.16	304	32.94
고등학교 3학년	7	0.92	0	0.00	7	0.76
무응답	11	1.44	3	1.86	14	1.52
전체	762	100	161	100	923	100

### 3) 거주 지역

강릉시 거주지역별로 일반 청소년과 위기(가능) 청소년의 설문응답 빈도를 살펴본 결과는 <표 Ⅲ-4>와 같다. 강릉시 거주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청소년은 포남동 143명(15.49%)과 교동 130명(14.08%)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이어 성덕동 108명(11.70%), 강남동 100명(10.83%), 주문진읍 99명(10.73%), 내곡동 94명(10.18%)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 청소년 또한 포남동 112명(14.70%)과 교동 111명(14.57%)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뒤이어 성덕동(92명, 12.07%), 내곡동(81명, 10.63%), 주문진읍(79명, 10.37%), 강남동(75명, 9.84%) 순으로 분포하였다. 반면 위기 청소년은 포남동 31명(19.25%)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강남동 25명(15.53%), 교동 19명(11.80%), 성덕동 16명(9.94%), 내곡동 13명(8.07%), 송정동 11명(6.83%)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러한 결과는 전체적으로 도심 지역(포남동·교동·성덕동·강남동)에 청소년이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위기 청소년의 경우 포남동과 강남동 등 일부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인다는 점을 시사한다.

<표 Ⅲ-4> 일반 청소년 및 위기(가능) 청소년 거주지역 분포

단위:명

구분	일반		위기		전체	
	n	%	n	%	n	%
주문진읍	76	8.5	23	2.6	99	11.0
성산면	4	0.4	0	0.0	4	0.4
구정면	4	0.4	2	0.2	6	0.6
강동면	7	0.8	0	0.0	7	0.8
옥계면	3	0.3	1	0.1	4	0.4
사천면	5	0.5	0	0.0	5	0.6
연곡면	6	0.7	3	0.3	9	1.0
홍제동	13	1.5	2	0.2	15	1.7
중앙동	22	2.5	1	0.1	23	2.6
옥천동	4	0.4	1	0.1	5	0.6
교동	105	11.7	25	2.8	130	14.5
포남동	108	12.1	35	3.9	143	16.0
초당동	26	2.9	4	0.4	30	3.3
송정동	64	7.1	12	1.3	76	8.5
내곡동	73	8.1	21	2.3	94	10.5
강남동	69	7.7	31	3.5	100	11.2
성덕동	88	9.8	20	2.2	108	12.1
경포동	23	2.7	3	0.3	27	3.0
전체	718	79.1	190	20.9	896	100

#### 4) 거주 형태(보호자 유형)

강릉시 청소년의 거주 형태를 조사한 결과는 <표 Ⅲ-5>에 제시되어 있으며, 주요 응답 유형별 분포는 다음과 같다.

<표 Ⅲ-5> 일반 청소년 및 위기(가능) 청소년 거주 형태(보호자 유형)

단위:명

구분	일반		위기		전체	
	n	%	n	%	n	%
친아버지	608	31.63	121	30.87	729	31.51
친어머니	674	35.07	136	34.69	810	35.00
새아버지	14	0.73	7	1.79	21	0.91
새어머니	8	0.42	2	0.51	10	0.43
할머니.할아버지	72	3.75	14	3.57	86	3.72
친척	5	0.26	0	0.00	5	0.22
형제자매	508	26.44	106	27.04	614	26.53
친구.선후배	6	0.31	2	0.51	8	0.35
청소년보호자 (쉼터·그룹홈)	5	0.26	0	0.00	5	0.22
혼자 살고 있다	1	0.05	2	0.51	3	0.13
기타	18	0.94	2	0.51	20	0.86
무응답	3	0.16	0	0.00	3	0.13
합계(복수응답)	1,922	100	392	100	2,314	100

※ 중복응답 가능

### 5) 부모의 국적

부모의 국적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청소년의 94.69%(874명)는 부모가 두 분 모두 한국인이라고 응답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반면 한 분만 외국인인 경우는 3.36%(31명)으로 나타났으며, 두 분 모두 외국인 0.33%(3명), 한 분만 중국교포 0.33%(3명), 두 분 모두 북한이탈주민 또는 한 분만 북한이탈주민 0.22%(각 1명, 0.11%) 등은 모두 매우 낮은 비중을 보였다. 집단별로 살펴보면, 일반 청소년의 94.88%, 위기 청소년의 93.79%가 부모 모두 한국인이라고 응답해 두 집단 모두 유사한 분포를 보였다. 전체적으로 외국인 또는 북한이탈주민 가정 등 다문화 배경 청소년의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된다.

<표 Ⅲ-6> 일반 청소년 및 위기(가능) 청소년 부모국적 분포

단위:명

구분	일반		위기		전체	
	n	%	n	%	n	%
두 분 모두 한국인	723	94.88	151	93.79	874	94.69
두 분 모두 외국인	2	0.26	1	0.62	3	0.33
한 분만 외국인	26	3.41	5	3.11	31	3.36
두 분 모두 북한이탈주민	0	0.00	1	0.62	1	0.11
한 분만 북한이탈주민	1	0.13	0	0.00	1	0.11
한 분만 중국교포	1	0.13	2	1.24	3	0.33
모르겠다	2	0.26	0	0.00	2	0.22
무응답	7	0.92	1	0.62	8	0.87
전체	762	100	161	100	923	100

## 6) 가정경제 수준

강릉시 청소년의 가정경제 수준을 살펴본 결과,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69.88%(645명)으로 가장 높아 대부분이 평균적인 경제 상태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잘 사는 편이다'가 21.56%(199명)로 비교적 높은 편에 속했으며, '어려운 편이다'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4.23%(39명)으로 집계되었다. 반면 '매우 어려운 편이다' 0.76%(7명), '매우 잘 사는 편이다' 3.25%(30명) 등 극단적 인식 비율은 낮게 나타나, 전반적으로 청소년 다수가 중간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경제 상황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일반·위기 청소년 모두에서 '보통이다'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 두 집단 간 경제 수준 인식이 대체로 유사한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표 Ⅲ-7> 일반 청소년 및 위기(가능) 청소년 가정경제수준 분포

n=920/단위:명

구분	일반		위기		전체	
	n	%	n	%	n	%
매우 어려운 편이다	5	0.66	2	1.24	7	0.76
어려운 편이다	26	3.41	13	8.07	39	4.23
보통이다	526	69.03	119	73.91	645	69.88
잘 사는 편이다	174	22.84	25	15.53	199	21.56
매우 잘 사는 편이다	28	3.67	2	1.24	30	3.25
무응답	3	0.39	0	0.00	3	0.33
전체	762	100	161	100	923	100

### 7) 국가나 단체의 지원 내용

국가나 단체로부터 받은 지원 내용을 살펴본 결과, 지원받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가 전체 959건 중 498건(51.93%)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도 36.29%(348건)으로 높아, 많은 청소년이 실제 지원 여부를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지원 유형 가운데서는 급식비 지원이 46건(4.80%)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의료비 지원 23건(2.40%), 기초생계비 지원 17건(1.77%) 순으로 나타났다. 긴급복지지원(0.73%)과 기타(1.67%) 응답은 매우 낮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 상당수가 복지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거나, 지원 여부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음을 보여주며, 복지 정보 제공 및 접근성 강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Ⅲ-8> 일반 청소년 및 위기(가능) 청소년 국가·단체 지원내용 분포

단위:명

구분	일반		위기		전체	
	n	%	n	%	n	%
없다	424	53.99	74	42.77	498	51.93
기초생계비 지원	9	1.15	8	4.62	17	1.77
의료비 지원	14	1.78	9	5.20	23	2.40
급식비 지원	38	4.83	8	4.62	46	4.80
긴급복지지원	6	0.76	1	0.58	7	0.73
기타	15	1.91	1	0.58	16	1.67
모르겠다	276	35.12	72	41.62	348	36.29
무응답	4	0.51	0	0.00	4	0.42
전체(복수응답)	786	100	173	100	959	100

※ 중복응답 가능

### 8) 부모의 물질적·정서적 지원 정도

부모로부터 받는 물질적 지원 정도를 살펴본 결과, 전체 청소년 중 '충분히 받고 있다'는 응답이 48.32%(446명)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보통이다'가 23.94%(221명)를 차지했으며, '받는 편이다'는 19.40%(179명)로 나타났다. 반면, 지원이 부족하다(5.96%)거나 전혀 받지 못한다(1.84%)는 응답은 비교적 낮은 수준이었다.

정서적 지원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나타났다. 전체의 38.13%(352명)이 '충분히 받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보통이다'는 32.72%(302명), '받는 편이다'는 22.10%(204명)였다. 반면, 정서적 지원이 부족하다(4.33%)거나 전혀 받고 있지 않다(2.28%)고 응답한 비율은 낮게 나타나 대다수 청소년이 일정 수준 이상의 정서적 지원을 받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위기 청소년 집단에서는 '부족하다' 또는 '전혀 받지 못한다'는 응답 비율이 물질·정서 지원 모두에서 일반 청소년보다 더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이는 가정 내 지원 격차가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표 Ⅲ-9> 일반 청소년 및 위기(가능) 청소년 물질적·정서적 지원 분포

단위:명

구분	물질지원						정서지원					
	일반		위기		전체		일반		위기		전체	
	n	%	n	%	n	%	n	%	n	%	n	%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12	1.6	5	3.11	17	1.8	9	1.1	12	7.4	21	2.2
부족하다	34	4.5	21	13.0	55	6.0	14	1.8	26	16.1	40	4.3
보통이다	164	21.5	57	35.4	221	23.9	228	29.9	74	45.9	302	32.7
받는 편이다	144	18.9	35	21.8	179	19.5	179	23.4	25	15.5	204	22.1
충분히 받고 있다	403	52.8	43	26.7	446	48.3	328	43.0	24	14.9	352	38.1
무응답	5	0.7	0	0	5	0.5	4	0.5	0	0	4	0.4
전체	762	100	161	100	923	100	762	100	161	100	923	100

### 9) 지지 자원의 수

청소년이 보유한 지지 자원의 수를 살펴본 결과, 전체적으로 '4명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6.93%(433명)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2-3명 있다'는 응답이 40.09%(370명)로 나타나, 다수의 청소년이 비교적 넓은 지지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5.53%(51명)에 그쳐 극소수였다.

집단별로 보면, 일반 청소년은 '4명 이상'이라는 응답이 52.10%로 가장 많아 지지 기반이 비교적 안정적인 반면, 위기 청소년은 '없다'(16.77%)와 '1명'(17.39%)의 비중이 높아 지지망이 부족한 경향을 보였다. 이는 위기 청소년 집단이 일상적 어려움이나 정서적 위기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수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임을 의미한다.

<표 Ⅲ-10> 일반 청소년 및 위기(가능) 청소년 지지 자원 수 분포

n=919/단위:명

구분	일반		위기		전체	
	n	%	n	%	n	%
없다	24	3.15	27	16.77	51	5.53
1명	37	4.86	28	17.39	65	7.04
2-3명	300	39.37	70	43.48	370	40.09
4명 이상	397	52.1	36	22.36	433	46.93
무응답	4	0.52	0	0	4	0.43
전체	762	100	161	100	923	100

### 10) 청소년 지원 사업·기관 인지·이용 여부

청소년이 청소년 지원 사업 및 기관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 체적으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대한 인지도가 가장 높아 500명(54.17%)으로 나타났다. 그다음으로는 청소년쉼터 481명(52.12%), 청소년전화 1388 387명(41.95%),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343명(37.16%) 순으로 이어졌다. 이는 전체 청소년 대상 홍보 및 기관 노출 빈도에서 일부 기관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인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알고 있다는 응답이 419명(45.41%), 청소년쉼터 408명(44.22%), 청소년전화 1388 337명(36.52%),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288명(31.20%)으로 나타나 기관별 인지 수준이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다. 반면, 위기(가능) 청소년의 인지율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렀는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80명(8.67%), 청소년쉼터 72명(7.80%), 청소년전화 1388 50명(5.42%),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55명(5.96%)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위기 청소년이 일반 청소년에 비해 관련 정보에 접근할 기회가 제한적이거나, 주변 환경의 지원체계 안내가 부족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기관별 인지 여부와는 별도로, 해당 기관을 모른다고 응답한 사례가 전체적으로 40~60% 수준으로 나타났다는 점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경우 전체 응답자 중 567명(61.43%)이 '모른다'고 응답하여, 기관 인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안내

### Ⅲ. 연구결과

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청소년 지원 사업·기관의 이용 경험을 살펴본 결과, 전체 응답자 대부분이 이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전화 1388 이용 경험은 30명(3.25%), 청소년상담복지센터 52명(5.63%),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62명(6.71%), 청소년쉼터 42명(4.55%)에 그쳤다. 즉, 절반 이상이 기관을 알고 있다고 응답했음에도 실제 이용률은 3~7% 수준에 불과했다.

일반 청소년은 각 기관 이용률이 1~5% 수준으로 낮았으며, 위기(가능) 청소년 역시 낮게 나타났다. 다만, 위기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전화 1388'(1.78%) 이용률이 일반 청소년보다 소폭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전반적으로 청소년들이 지원기관의 존재를 인식하더라도 실제 이용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낮음을 보여주며, 기관 홍보 및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Ⅲ-11> 일반 청소년 및 위기(가능) 청소년 청소년 지원 사업·기관 인지 분포

단위:명

구분	알고 있다						모른다		무응답	
	일반		위기		전체		n	%	n	%
	n	%	n	%	n	%				
청소년전화 1388	337	36.52	50	5.42	387	41.95	520	56.24	16	1.73
청소년상담복지센터	419	45.41	80	8.67	500	54.17	410	44.42	13	1.41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288	31.20	55	5.96	343	37.16	567	61.43	13	1.41
청소년쉼터	408	44.22	72	7.80	481	52.12	427	46.26	15	1.63

<표 Ⅲ-12> 일반 청소년 및 위기(가능) 청소년 청소년지원사업·기관 이용 분포

단위:명

구분	이용해봤다						이용한적 없다		무응답	
	일반		위기		전체		n	%	n	%
	n	%	n	%	n	%				
청소년전화 1388	14	1.52	16	1.73	30	3.25	877	94.93	16	1.73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9	3.14	23	2.49	52	5.63	852	92.31	19	2.06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46	4.98	16	1.73	62	6.71	842	91.12	19	2.06
청소년쉼터	28	3.03	14	1.52	42	4.55	862	93.29	19	2.06

### 11) 원하는 상담 형태

청소년이 선호하는 상담 형태를 분석한 결과, 대면 개인상담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57.98%(535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들이 직접적인 관계 형성과 개별적 상호작용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음으로는 비대면 전화상담이 14.84%(137명), 비대면 비실시간 상담이 13.76%(127명) 순으로 나타나, 비대면 방식에 대한 수요도 일정 수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대면 집단상담은 전체의 10.73%(99명)으로 비교적 낮은 편이었으며, 비대면 실시간 상담 선호는 2.17%(20명)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일반·위기 청소년 집단 모두 대면 개인상담을 최우선으로 선호하지만, 위기 청소년은 비대면 실시간(3.73%)과 비대면 비실시간 상담(16.77%)의 비중이 일반 청소년보다 다소 높아 다양한 상담 접근 방식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점이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는 상담서비스 제공 시 대면 기반 상담을 중심으로 하되, 비대면 상담의 접근성과 선택 폭을 확대하는 복합적 지원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Ⅲ-13> 일반 청소년 및 위기(가능) 청소년 선호 상담형태 분포

단위:명

구분	일반		위기		전체	
	n	%	n	%	n	%
대면 개인상담	445	58.39	90	55.9	535	57.98
비대면 실시간	14	1.84	6	3.73	20	2.17
비대면 비실시간	100	13.12	27	16.77	127	13.76
비대면 전화상담	116	15.22	21	13.04	137	14.84
대면 집단상담	82	10.76	17	10.56	99	10.73
무응답	5	0.66	0	0	5	0.54
전체	762	100	161	100	923	100

## 12) 상담에 대한 기대

청소년들이 상담 시 상담자에게 기대하는 태도를 살펴본 결과, '내 이야기를 듣고 이해해줬으면 한다'는 응답이 전체 343명(약 34.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들이 상담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가 정서적 공감과 진정한 경청임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정보를 줬으면 한다'는 응답이 242명(약 24.1%), '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줬으면 한다'는 응답이 220명(약 21.9%)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들이 단순한 경청뿐 아니라 실질적인 방향 제시와 직접적 도움을 동시에 필요로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한다'는 응답은 127명(약 12.7%)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청소년들이 자기 주도적 해결보다는 상담자의 적극적인 개입과 안내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 상담에서 정서적 공감(경청)과 실질적 문제 해결 지원이 균형 있게 제공되는 상담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Ⅲ-14> 일반 청소년 및 위기(가능) 청소년 선호 상담형태 분포

단위:명

구분	일반		위기		전체	
	n	%	n	%	n	%
내 이야기를 듣고 이해해줬으면 한다	269	35.3	57	35.4	326	35.33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정보를 줬으면 한다	206	27.04	36	22.36	242	26.22
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줬으면 한다	174	22.83	46	28.57	220	23.83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한다	107	14.04	20	12.42	127	13.76
무응답	6	0.79	2	1.24	8	0.87
전체	762	100	161	100	923	100

## 나. 일반 청소년과 위기 청소년의 위험·보호요인, 위기 경험 비교

본 연구에서는 강릉시 청소년의 생활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위험요인(risk factor)과 보호요인(protective factor)의 두 차원에서 접근하였다. 위험요인은 청소년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여러 가지 행동문제를 초래하는 요인을 의미하며, 보호요인은 이러한 부정적 상황 속에서도 정상적인 발달을 유지하도록 돕는 긍정적 요인을 뜻한다(김명숙, 2008). 이러한 두 요인을 개인, 가정, 학교, 지역사회, 또래 영역으로 구분하여, 각 영역에서의 위험 수준에 따른 청소년 집단 간 차이를 비교하였다. 특히 위험요인 척도에서 일정 기준 이상의 점수를 받은 학생들을 '위기 청소년'으로 분류하고, 나머지 학생들을 '일반 청소년'으로 구분하여 두 집단 간 생활실태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 1) 위험요인

위기 수준에 따른 일반 청소년과 위기(가능) 청소년의 위험요인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표 Ⅲ-15>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 결과, 개인, 가정, 학교, 지역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p < .001$ ), 모든 요인에서 위기 청소년이 일반 청소년보다 높은 평균을 보여 위기 청소년의 위험 수준이 전반적으로 더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개인 영역의 하위요인 중 '우울·불안(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나는 늘 슬프다 등)'에서 위기 청소년의 평균은 1.99점으로, 일반 청소년(0.61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t = -28.36, p < .001$ ). 또한 '공격성·충동성·부주의(나는 말보다 주먹이 앞선다, 다른 사람과 자주 다툰다 등)'에서도 위기 청소년(1.29점)이 일반 청소년(0.35점)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였다( $t = -13.65, p < .001$ ). 이는 위기 청소년이 정서적 불안정과 충동적 행동 등 개인적 위험요인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은 위험수준을 나타냄을 의미한다.

가정 영역에서는 '부모 간 갈등'( $t = -21.86, p < .001$ )과 '부모와의 갈등·방임'( $t = -16.74, p < .001$ ) 모두에서 위기 청소년이 일반 청소년보다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즉, 위기 청소년들은 부모 간의 불화나 부모와의 관계 갈등을 더 많이 경험하며, 가정 내에서의 방임적 환경을 인식하는 경향이 더 높았다.

학교 영역의 '학교생활 부적응'에서도 위기 청소년의 평균(1.64점)이 일반 청소년(0.44

점)보다 높았으며, 두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t=-21.44, p<.001$ ). 이는 위기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에서의 부적응, 교사와의 관계 갈등, 학업 불만족 등의 문제를 더 자주 경험함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영역의 '유해환경 노출(유해업소, 청소년 유해업소, 범죄 위험 지역 등)'에서도 위기 청소년(1.22점)이 일반 청소년(0.39점)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여( $t=-14.33, p<.001$ ), 지역사회 환경에서도 위기 청소년들이 보다 많은 위험 요인에 노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위기 청소년들은 개인적·가정적·학교적·지역사회적 측면 모두에서 일반 청소년보다 높은 수준의 위험요인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다차원적인 위험요인 관리 및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표 Ⅲ-15> 일반 청소년 및 위기(가능) 청소년 위험요인 평균 비교

구분		일반(n=728)		위기(n=193)		t
		M	SD	M	SD	
개인	우울·불안	0.61	0.60	1.99	0.62	-28.36***
	공격성·충동성·부주의	0.35	0.57	1.29	0.91	-13.65***
가정	부모 간 갈등	0.59	0.53	1.57	0.62	-21.86***
	부모와의 갈등·방임	0.21	0.34	1.11	0.72	-16.74***
학교	학교생활 부적응	0.44	0.53	1.64	0.72	-21.44***
지역사회	지역사회 유해환경	0.39	0.55	1.22	0.76	-14.33***

\* $p<.05$ , \*\* $p<.01$ , \*\*\* $p<.001$

위기 수준별 청소년 집단에서 문제가족원과 비행친구의 존재 여부를 비교한 결과는 <표 Ⅲ-16>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 결과, 모든 문항에서 일반 청소년보다 위기 청소년의 비율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모두  $p<.001$ ), 이는 위기 청소년들이 가족 및 또래 수준에서 더 많은 위험 환경에 노출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먼저 가정 영역의 하위요인을 살펴보면, 가족 중 소년원이나 교도소에 입소한 사람이 있는 경우는 위기 청소년이 10.4%로, 일반 청소년의 1.5%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chi^2=36.87, p<.001$ ). 또한 가족 중 약물이나 알코올 중독자가 있는 경우 역시 위기 청소년

### Ⅲ. 연구결과

년이 17.7%로, 일반 청소년(2.9%)보다 현저히 높은 비율을 보였다( $\chi^2=58.18, p<.001$ ). 가족 내 가출 경험이 있는 경우에서도 위기 청소년은 18.8%로, 일반 청소년(5.4%)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두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chi^2=36.22, p<.001$ ). 이러한 결과는 위기 청소년들이 범죄, 중독, 가출 등 부정적 가족 환경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또래 영역에서도 모든 항목에서 위기 청소년이 일반 청소년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주 1회 이상 음주하는 친구가 있는 경우 위기 청소년은 21.4%로, 일반 청소년(8.1%)에 비해 약 세 배 가까이 높았으며( $\chi^2=27.37, p<.001$ ), 가출한 친구가 있는 경우 또한 위기 청소년이 20.4%, 일반 청소년이 7.2%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chi^2=29.81, p<.001$ ). 경찰이나 지구대 조사를 받은 친구가 있는 경우에서도 위기 청소년이 16.8%, 일반 청소년이 8.1%로 차이를 보였으며( $\chi^2=12.69, p<.001$ ), 폭력서클에 소속된 친구가 있는 경우 역시 위기 청소년(9.5%)이 일반 청소년(1.7%)보다 높게 나타났다( $\chi^2=29.13, p<.001$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위기 청소년들은 가족 내 문제(범죄, 중독, 가출 등)뿐만 아니라 또래 관계에서도 비행행동에 노출된 친구들과의 교류가 더 많았다. 이는 위기 청소년이 다차원적인 위험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들의 위험행동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정과 또래 집단 모두를 포함하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Ⅲ-16> 일반 청소년 및 위기(가능) 청소년 위험요인-문제가족원 및 비행친구 비교

구분				일반(n=726)		위기(n=192)		전체(n=918)		$\chi^2$
				n	%	n	%	n	%	
가정	문제가족원	소년원·교도소 입소	없다	715	98.5	172	89.6	887	96.6	36.87***
			있다	11	1.5	20	10.4	31	3.4	
	약물·알코올 중독	없다	705	97.1	158	82.3	863	94.0	58.18***	
		있다	21	2.9	34	17.7	55	6.0		
	가출경험	없다	687	94.6	156	81.3	843	91.8	36.22***	
		있다	39	5.4	36	18.8	75	8.2		
또래	비행	주1회 이상 음주	없다	667	91.9	151	78.6	818	89.1	27.37***
			있다	59	8.1	41	21.4	100	10.9	

구분			일반(n=726)		위기(n=192)		전체(n=918)		$\chi^2$
			n	%	n	%	n	%	
친구	가출경험	없다	675	92.8	152	79.6	827	90.1	29.81***
		있다	52	7.2	39	20.4	91	9.9	
	경찰·지구대 조사	없다	669	91.9	159	83.2	828	90.1	12.69***
		있다	59	8.1	32	16.8	91	9.9	
	폭력서클 소속	없다	715	98.3	172	90.5	887	96.7	29.13***
		있다	12	1.7	18	9.5	30	3.3	

\* $p < .05$ , \*\* $p < .01$ , \*\*\* $p < .001$

## 2) 보호요인

위기 수준에 따른 일반 청소년과 위기(가능) 청소년의 보호요인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표 Ⅲ-17>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 결과, 개인, 가정, 학교, 지역사회, 또래 영역 모두에서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 $p < .001$ ), 모든 영역에서 일반 청소년이 위기 청소년보다 높은 평균을 보여 보호요인 수준이 전반적으로 더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Ⅲ-17> 일반 청소년 및 위기(가능) 청소년 보호요인 평균 비교

구분		일반(n=728)		위기(n=193)		$t$
		M	SD	M	SD	
개인	자기존중감·목표의식·적극적인 대처	3.02	0.69	2.24	0.58	15.84***
가정	가족의 관심·신뢰	3.28	0.75	2.39	0.75	14.74***
학교	교사의 관심·관계	3.36	0.79	2.58	0.94	10.61***
지역사회	지지체계·지원프로그램	2.99	0.93	2.18	0.88	10.90***
또래	친구관계	2.50	0.98	1.82	0.84	9.75***

\* $p < .05$ , \*\* $p < .01$ , \*\*\* $p < .001$

먼저 개인 영역의 하위요인인 '자기존중감·목표의식·적극적인 대처(나는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나는 목표를 세우고 노력한다 등)'에서 일반 청소년의 평균은 3.02점으로, 위기 청소년(2.24점)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t=15.84, p<.001$ ). 이는 일반 청소년이 위기 청소년보다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목표 지향적이며,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경향이 높음을 시사한다.

가정 영역의 '가족의 관심·신뢰'에서도 일반 청소년의 평균은 3.28점으로, 위기 청소년(2.39점)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t=14.74, p<.001$ ). 이는 일반 청소년들이 가족으로부터의 정서적 지지와 신뢰를 더 많이 경험하고 있으며, 가족관계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학교 영역의 '교사의 관심·관계' 또한 일반 청소년(3.36점)이 위기 청소년(2.58점)보다 유의하게 높은 평균을 보였다( $t=10.61, p<.001$ ). 이는 일반 청소년들이 교사와의 관계를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교사로부터의 관심과 격려를 더 많이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지역사회 영역에서는 '지지체계·지원프로그램' 요인에서 일반 청소년의 평균이 2.99점, 위기 청소년은 2.18점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t=10.90, p<.001$ ). 이는 일반 청소년이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사회적 지지나 지원프로그램의 존재를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또래 영역의 '친구관계'에서도 일반 청소년(2.50점)이 위기 청소년(1.82점)보다 유의하게 높은 평균을 보였다( $t=9.75, p<.001$ ). 이는 일반 청소년들이 또래와의 관계에서 상호 신뢰와 지지를 더 많이 느끼며,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위기 청소년들은 개인 내적 요인뿐 아니라 가족, 학교, 지역사회, 또래 관계 등 외적 요인 전반에서도 일반 청소년에 비해 보호요인이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위기 청소년의 위험행동 예방과 회복탄력성 강화를 위해 다차원적 보호체계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 3) 위기 경험(위기 결과)

#### 가)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청소년의 인터넷·스마트폰 사용 실태 및 중독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1달간의 사용으로 인한 부정적 경험 빈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Ⅲ-18>~<표 Ⅲ-19>에 제시되어 있다. 전반적으로는 부정적 영향을 거의 경험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했으나, 일정 비율의 청소년들은 반복적이거나 지속적인 문제 사용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모든 문항에서 위기 청소년이 일반 청소년보다 부정적 경험 비율이 높아,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취약성이 더 크게 확인되었다.

<표 Ⅲ-18> 일반 청소년 및 위기(가능)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전체 응답 빈도

항목	구분	일반		위기		전체		$\chi^2$	
		n	%	n	%	n	%		
1	지난 1달간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타인과 심한 갈등을 일으킴	해당없음	566	77.7	80	41.5	646	70.2	37.1***
	해당있음	196	26.9	81	42	277	30.1		
2	지난 1달간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계획한 일들을 제대로 못함	해당없음	396	54.4	61	31.6	457	49.6	9.99
	해당있음	366	50.3	100	51.8	466	50.6		
3	지난 1달간 인터넷·스마트폰 3~4시간 사용	해당없음	191	26.2	27	14	218	23.7	4.62
	해당있음	571	78.4	134	69.4	705	76.5		
4	지난 1달간 게임이나 채팅이나 일상생활 못함	해당없음	518	71.2	74	38.3	592	64.3	27.06***
	해당있음	244	33.5	87	45.1	331	35.9		

\* $p < .05$ , \*\* $p < .01$ , \*\*\* $p < .001$

<표 Ⅲ-19> 일반 청소년 및 위기(가능)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전체 응답 빈도

항목		구분	전혀 없다	한달 1회	한달 2~3회	주 1~2회	거의 매일	
1	지난 1달간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타인과 심한 갈등을 일으킴	일반	n	566	110	54	18	8
			%	74.9	14.6	7.1	2.4	1.1
		위험	n	80	30	31	14	5
			%	50	18.8	19.4	8.8	3.1
		전체	n	646	140	85	32	13
			%	70.5	15.3	9.3	3.5	1.4
2	지난 1달간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계획한 일들을 제대로 못함	일반	n	396	144	129	66	24
			%	52.2	19	17	8.7	3.2
		위험	n	61	23	34	26	16
			%	38.1	14.4	21.2	16.2	10
		전체	n	457	167	163	92	40
			%	49.7	18.2	17.7	10	4.4
3	지난 1달간 인터넷·스마트폰 3~4시간 사용	일반	n	191	70	116	144	234
			%	25.3	9.3	15.4	19.1	31
		위험	n	27	11	28	29	65
			%	16.9	6.9	17.5	18.1	40.6
		전체	n	218	81	144	173	299
			%	23.8	8.9	15.7	18.9	32.7
4	지난 1달간 게임이나 채팅이나 일상생활 못함	일반	n	518	87	77	58	19
			%	68.2	11.5	10.1	7.6	2.5
		위험	n	74	19	24	24	18
			%	46.5	11.9	15.1	15.1	11.3
		전체	n	592	106	101	82	37
			%	64.5	11.5	11	8.9	4

먼저 '지난 1달간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타인과 심한 갈등을 일으킨 적이 있다'는 문항에서 전체 청소년의 70.5%는 '전혀 없다'고 응답했으나, 13명(1.4%)은 '거의 매일'이라고 응답해 반복적인 대인 갈등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는 일부 청소년이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이 대인관계에 직접적인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계획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적이 있다'는 문항에서는 '전혀 없다'는 응답이 49.7%로 절반 수준이었으며, '주 1~2회' 또는 '거의 매일' 경험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10.0%, 4.4%였다. 이는 약 10명 중 1명꼴로 인터넷·스마

트폰 사용으로 인해 자기조절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하루 3~4시간 이상 인터넷·스마트폰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항목에서는 '거의 매일'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2.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상당수 청소년이 일상적으로 장시간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으로, 습관적 사용 및 과의존 가능성을 시사한다.

'게임이나 채팅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하지 못한 적이 있다'는 항목에서는 '전혀 없다'는 응답이 64.5%였으나, '주 1~2회' 또는 '거의 매일'이라고 응답한 청소년도 각각 8.9%, 4.0%로 나타났다. 이는 일부 청소년이 게임이나 채팅 등 여가성 스마트폰 활동이 학업 및 생활리듬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다수의 청소년은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문제를 경험하지 않으나, 일정 비율의 청소년들은 과도한 사용, 계획 실천의 실패, 대인 갈등, 일상생활 지장 등 중독적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특히 '3~4시간 이상 사용' 및 '계획한 일 수행 실패' 항목에서 비교적 높은 빈도를 보여,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약화와 생활불균형을 예방하기 위한 디지털 사용 관리 교육 및 상담 지원체계 강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 나) 약물(술·담배·본드 등) 및 도박(온·오프라인)

강릉시 청소년의 약물 및 도박 관련 경험을 살펴본 결과, 지난 1달간 술을 주 1~2회 이상 마신 청소년은 전체 104명(12.5%)으로 나타났다. 집단별로는 일반 청소년 62명(8.1%), 위기(가능) 청소년 42명(26.1%)으로, 위기 청소년의 위험 음주 비율이 일반 청소년보다 약 세 배 이상 높았다. 두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한 결과,  $\chi^2=43.22$ ,  $p<.05$ 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위기 청소년의 음주 경험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 1달간 담배를 주 1~2회 이상 피운 청소년은 전체 68명(8.5%)이었으며, 일반 청소년 34명(4.5%), 위기 청소년 34명(21.1%)으로, 위기 청소년의 흡연 경험이 일반 청소년보다 약 5배 높게 나타났다. 두 집단 간 차이는  $\chi^2=32.00$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p<.001$ )가 있었다. 또한 마약류를 주 1~2회 이상 사용한 청소년은 전체 48명(5.8%)으로, 일반 청소년 28명(3.7%), 위기 청소년 20명(12.4%)이었다. 위기 청소년이 일반 청소년보다 마약류 사용 경험이 현저히 높았으며, 이 차이는  $\chi^2=25.11$ ,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한편 돈을 걸고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게임(도박)을 주 1~2회 이상 한 청소년은 전체 46명(6.0%)으로, 일반 청소년 19명(2.5%), 위기 청소년 27명(16.8%)이었다. 위기 청소년의 도박 경험은 일반 청소년에 비해 약 7배 높았으며, 두 집단 간 차이는  $\chi^2=12.56$ ,  $p<.05$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 Ⅲ. 연구결과

종합하면, 강릉시 청소년의 약물 및 도박 관련 위험행동은 전반적으로 위기(가능) 청소년 집단에서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음주와 도박에서는 발생빈도와 비율 모두 위기 청소년이 일반 청소년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흡연과 마약류 사용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위기 청소년이 약물 및 도박 문제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노출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위기 청소년의 약물 및 도박 문제 예방을 위한 조기 개입 및 맞춤형 상담·교육 강화가 필요하다.

<표 Ⅲ-20> 일반 청소년 및 위기(가능) 청소년 약물 및 도박 전체 응답 빈도

항목		구분	전혀없음	1번	2-3번	월1-2회	주1-2회 이상	무응답	
1	지난 1달간 술을마심 (거의매일)	일반	n	700	32	19	4	3	4
			%	93.2	4.3	2.5	0.5	0.4	0.5
		위험	n	119	12	21	3	5	1
			%	69.2	7	12.2	1.7	2.9	0.6
		전체	n	819	44	40	7	8	5
			%	88.7	4.8	4.3	0.8	0.9	0.5
2	지난 1달간 담배를피움 (거의매일)	일반	n	728	12	10	2	7	3
			%	93.6	1.5	1.3	0.3	0.9	0.4
		위험	n	127	9	18	0	6	1
			%	77.9	5.5	11	0	3.7	0.6
		전체	n	855	21	28	2	13	4
			%	92.6	2.3	3	0.2	1.4	0.4
3	지난 1달간 마약류사용 (주1-2회이상)	일반	n	734	15	6	3	2	2
			%	96.1	2	0.8	0.4	0.3	0.3
		위험	n	141	9	9	1	1	0
			%	85.5	5.5	5.5	0.6	0.6	0
		전체	n	875	24	15	4	3	2
			%	94.8	2.6	1.6	0.4	0.3	0.2
4	지난 1달간 돈을걸고하는 온·오프라인 게임을함 (주1-2회이상)	일반	n	743	12	4	1	0	2
			%	97	1.6	0.5	0.1	0	0.3
		위험	n	134	14	9	2	2	0
			%	83.2	8.7	5.6	1.2	1.2	0
		전체	n	877	26	13	3	2	2
			%	95	2.8	1.4	0.3	0.2	0.2

<표 Ⅲ-21> 일반 청소년 및 위기(가능) 청소년 약물 및 도박 위기경험 비교

항목	구분	일반		위기		전체		$\chi^2$	
		n	%	n	%	n	%		
1	지난 1달간 술을 마심 (주1~2회 이상)	해당없음	700	91.9	119	73.9	819	87.5	43.22*
		해당있음	62	8.1	42	26.1	104	12.5	
2	지난 1달간 담배를 피움 (주1~2회 이상)	해당없음	728	95.5	127	78.9	855	91.5	32
		해당있음	34	4.5	34	21.1	68	8.5	
3	지난 1달간 마약류 사용 (주1~2회 이상)	해당없음	734	96.3	141	87.6	875	94.2	25.11
		해당있음	28	3.7	20	12.4	48	5.8	
4	지난 1달간 돈을 걸고 하는 온오프라인 게임을 함 (주1~2회 이상)	해당없음	743	97.5	134	83.2	877	94	12.56*
		해당있음	19	2.5	27	16.8	46	6	

\* $p < .05$ , \*\* $p < .01$ , \*\*\* $p < .001$

#### 다) 학교폭력 (피해·가해)

강릉시 청소년의 학교폭력 피해 경험을 살펴본 결과, 위기(가능) 청소년은 모든 유형의 학교폭력에서 일반 청소년보다 피해 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먼저, 지난 1년간 신체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전체의 8.1%였으며, 집단별로는 일반 청소년 5.6%, 위기 청소년 19.3%로, 위기 청소년의 피해 경험이 약 3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두 집단 간 차이는  $\chi^2=41.22$ ,  $p < .05$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언어폭력 피해 경험의 경우 전체의 12.2%가 '해당 있음'으로 응답했으며, 일반 청소년 9.1%, 위기 청소년 29.2%\*\*로 나타나, 위기 청소년이 일반 청소년보다 약 3배 높은 수준을 보였다 ( $\chi^2=36.00$ ,  $p < .05$ ).

따돌림·괴롭힘 피해 경험은 전체의 8.3%로, 일반 청소년 5.6%, 위기 청소년 20.5%로 나타났다. 이 또한 두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였다( $\chi^2=28.88$ ,  $p < .05$ ). 돈이나 물건을 강제로 빼앗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전체의 4.5%였으며, 일반 청소년 2.6%,

Ⅲ. 연구결과

위기 청소년 13.7%로, 위기 청소년의 피해 경험 비율이 약 5배 높았다( $\chi^2=19.66$ ,  $p<.05$ ).마지막으로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의 경우 전체의 6.0%로,일반 청소년 2.5%, 위기 청소년 19.9%로 위기 청소년의 피해 경험이 유의하게 높았다( $\chi^2=22.88$ ,  $p<.05$ ).

<표 Ⅲ-22> 일반 청소년 및 위기(가능) 청소년 학교폭력 피해 전체 응답 빈도

항목		구분	전혀없음	1번	2-3번	월1-2회	주1-2회이상	무응답	
1	지난 1년간 신체폭력 당함	일반	n	719	24	8	3	5	3
			%	92	3.1	1	0.4	0.6	0.4
		위험	n	130	11	12	2	6	0
			%	77.8	6.6	7.2	1.2	3.6	0
		전체	n	849	35	20	5	11	3
			%	9.6	3.7	2.1	0.5	1.2	0.3
2	지난 1년간 언어폭력 당함	일반	n	693	30	19	9	9	2
			%	88.7	3.8	2.4	1.2	1.2	0.3
		위험	n	114	16	16	3	11	1
			%	67.5	9.5	9.5	1.8	6.5	0.6
		전체	n	807	46	35	12	20	3
			%	86.3	4.9	3.7	1.3	2.1	0.3
3	지난 1년간 따돌림·괴롭 힘 당함	일반	n	719	25	9	5	2	2
			%	92	3.2	1.2	0.6	0.3	0.3
		위험	n	128	12	13	2	6	0
			%	76.2	7.1	7.7	1.2	3.6	0
		전체	n	847	37	22	7	8	2
			%	90.4	4	2.3	0.7	0.9	0.2
4	지난 1년간 돈·물건을 강제로 빼앗김	일반	n	742	8	3	3	4	2
			%	95		0.4	0.4	0.5	0.3
		위험	n	139	7	9	6	0	0
			%	84.8	4.3	5.5	3.7	0	0
		전체	n	881	15	12	9	4	2
			%	93.6	1.6	1.3	1	0.4	0.2
5	지난 1년간 사이버폭력 당함	일반	n	743	11	4	1	1	2
			%	96.3	1.4	0.5	0.1	0.1	0.3
		위험	n	129	12	13	4	3	0
			%	82.7	7.7	8.3	2.6	1.9	0
		전체	n	872	23	17	5	4	2
			%	94.1	2.5	1.8	0.5	0.4	0.2

<표 Ⅲ-23> 일반 청소년 및 위기(가능) 청소년 약물 및 도박 위기경험 비교

항목	구분	일반		위기		전체		$\chi^2$	
		n	%	n	%	n	%		
1	지난 1년간 신체폭력 당함	해당없음	719	94.4	130	80.7	849	91.9	41.22*
		해당있음	43	5.6	31	19.3	74	8.1	
2	지난 1년간 언어폭력 당함	해당없음	693	90.9	114	70.8	807	87.8	36
		해당있음	69	9.1	47	29.2	116	12.2	
3	지난 1년간 따돌림·괴롭힘 당함	해당없음	719	94.4	128	79.5	847	91.7	28.88
		해당있음	43	5.6	33	20.5	76	8.3	
4	지난 1년간 돈·물건을 강제로 빼앗김	해당없음	742	97.4	139	86.3	881	95.1	19.66
		해당있음	20	2.6	22	13.7	42	4.5	
5	지난 1년간 사이버폭력 당함	해당없음	743	97.5	129	80.1	872	94	22.88
		해당있음	19	2.5	32	19.9	51	6	

\* $p < .05$ , \*\* $p < .01$ , \*\*\* $p < .001$

강릉시 청소년의 학교폭력 가해 경험을 살펴본 결과, 위기(가능) 청소년은 모든 유형에서 일반 청소년보다 가해 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지난 1년간 신체폭력을 가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전체의 7.1%로, 일반 청소년이 5.2%, 위기 청소년이 19.3%로 위기 청소년의 비율이 약 4배 높았으며 두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chi^2=37.55$ ,  $p < .05$ ). 언어폭력 가해 경험은 전체의 8.5%로, 일반 청소년 6.6%, 위기 청소년 20.5%로 나타나 위기 청소년의 비율이 높았고( $\chi^2=30.88$ ,  $p < .05$ ), 따돌림·괴롭힘 가해 경험 역시 전체 4.5% 중 일반 청소년 2.1%, 위기 청소년 16.1%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chi^2=26.11$ ,  $p < .05$ ). 또한 돈이나 물건을 강제로 빼앗은 경험은 전체 4.2%로, 일반 청소년 1.8%, 위기 청소년 13.7%로 위기 청소년이 약 7배 높은 수준이었다( $\chi^2=18.77$ ,  $p < .05$ ).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의 경우 전체 3.8%로, 일반 청소년 1.7%, 위기 청소년 11.8%로 나타났으며( $\chi^2=21.22$ ,  $p < .05$ )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종합적으로 위기 청소년은 신체·언어·따돌림·금품갈취·사이버폭력 등 모든 유형에서 일반 청소년보다 가해 경험 비율이 3~7배 높았으며, 이는 위기 청소년이 폭력 가해 행동에도 더 많이 관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Ⅲ-24> 일반 청소년 및 위기(가능) 청소년 학교폭력 가해 전체 응답 빈도

항목		구분	전혀 없다	1년동안 1회	1년동안 2~3회	월 1~2회	주 1~2회 이상	무응 답	
1	지난 1년간 신체폭력 가함	일반	n	722	23	9	0	4	4
			%	91.9	2.9	1.1	0	0.5	0.5
		위험	n	130	14	13	1	3	0
			%	78.8	8.5	7.9	0.6	1.8	0
		전체	n	852	37	22	1	7	4
			%	89.7	3.9	2.3	0.1	0.7	0.4
2	지난 1년간 언어폭력 가함	일반	n	712	23	17	4	4	2
			%	90.5	2.9	2.2	0.5	0.5	0.3
		위험	n	128	11	16	4	2	0
			%	76.6	6.6	9.6	2.4	1.2	0
		전체	n	840	34	33	8	6	2
			%	88.3	3.6	3.5	0.8	0.6	0.2
3	지난 1년간 따돌림·괴롭 힘	일반	n	746	8	4	2	0	2
			%	95	1	0.5	0.3	0	0.3
		위험	n	135	10	13	2	1	0
			%	81.3	6	7.8	1.2	0.6	0
		전체	n	881	18	17	4	1	2
			%	92.7	1.9	1.8	0.4	0.1	0.2
4	지난 1년간 돈·물건을 강제로 빼앗음	일반	n	748	8	2	2	0	2
			%	95.2	1	0.3	0.3	0	0.3
		위험	n	139	8	8	4	1	1
			%	84.8	4.9	4.9	2.4	0.6	0.6
		전체	n	887	16	10	6	1	3
			%	93.2	1.7	1.1	0.6	0.1	0.3
5	지난 1년간 사이버폭력 가함	일반	n	749	6	4	1	1	1
			%	96.1	0.8	0.5	0.1	0.1	0.1
		위험	n	142	8	8	2	1	0
			%	85.5	4.8	4.8	1.2	0.6	0
		전체	n	891	14	12	3	2	1
			%	84.2	1.5	1.3	0.3	0.2	0.1

<표 Ⅲ-25> 일반 청소년 및 위기(가능) 청소년 약물 및 도박 위기경험

항목	구분	일반		위기		전체		$\chi^2$	
		n	%	n	%	n	%		
1	지난 1년간 신체폭력가함 (월1-2회이상)	해당없음	722	94.8	130	80.7	852	92.9	37.55*
		해당있음	40	5.2	31	19.3	71	7.1	
2	지난 1년간 언어폭력가함 (주1-2회이상)	해당없음	712	93.4	128	79.5	840	91.5	30.88
		해당있음	50	6.6	33	20.5	83	8.5	
3	지난 1년간 따돌림·괴롭힘 (주1-2회이상)	해당없음	746	97.9	135	83.9	881	95.1	26.11
		해당있음	16	2.1	26	16.1	42	4.5	
4	지난 1년간 돈·물건을강제로 빼앗음 (월1-2회이상)	해당없음	748	98.2	139	86.3	887	95.8	18.77
		해당있음	14	1.8	22	13.7	36	4.2	
5	지난 1년간 사이버폭력가함 (월1-2회이상)	해당없음	749	98.3	142	88.2	891	96.2	21.22
		해당있음	13	1.7	19	11.8	32	3.8	

\* $p < .05$ , \*\* $p < .01$ , \*\*\* $p < .001$

### 라) 비행 (갈취·절도·사법적 문제)

강릉시 청소년의 비행 경험을 살펴본 결과, 위기(가능) 청소년은 모든 항목에서 일반 청소년보다 비행 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지난 1년간 돈이나 물건을 갈취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전체의 3.8%였으며, 일반 청소년은 2.0%, 위기 청소년은 13.7%로 위기 청소년의 비율이 약 7배 높았고, 두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chi^2=19.55$ ,  $p < .05$ ). 돈이나 물건을 절도한 경험은 전체의 4.2%로, 일반 청소년이 2.2%, 위기 청소년이 13.7%로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chi^2=17.44$ ,  $p < .05$ ). 또한 지난 1년간 경찰서나 법원에 출두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전체의 5.6%였으며, 일반 청소년은 3.

3%, 위기 청소년은 16.1%로 위기 청소년의 비율이 약 5배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chi^2=23.88$ ,  $p<.05$ ). 종합적으로 위기 청소년은 갈취, 절도, 경찰 출두 등 모든 비행 영역에서 일반 청소년보다 현저히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이는 위기 청소년이 비행 행동과 법적 문제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표 Ⅲ-26> 일반 청소년 및 위기(가능) 청소년 비행 전체 응답 빈도

항목		구분	전혀 없음	1번	2-3번	월1-2회	주1-2회 이상	무 응답	
1	지난 1년간 돈·물건 갈취 경험	일반	n	747	6	3	3	1	2
			%	95.4	0.8	0.4	0.4	0.1	0.3
		위험	n	139	8	8	4	2	0
			%	83.2	4.8	4.8	2.4	1.2	0
		전체	n	886	14	11	7	3	2
			%	93.3	1.5	1.2	0.7	0.3	0.2
2	지난 1년간 돈·물건 절도 경험	일반	n	745	9	5	1	0	2
			%	95.2	1.1	0.6	0.1	0	0.3
		위험	n	139	11	7	2	2	0
			%	83.2	6.6	4.2	1.2	1.2	0
		전체	n	884	20	12	3	2	2
			%	93.1	2.1	1.3	0.3	0.2	0.2
3	지난 1년간 경찰서·법원 출두	일반	n	737	12	8	2	0	3
			%	94.4	1.5	1	0.3	0	0.4
		위험	n	135	10	9	5	2	0
			%	80.8	6	5.4	3	1.2	0
		전체	n	872	22	17	7	2	3
			%	92	2.3	1.8	0.7	0.2	0.3

<표 Ⅲ-27> 일반 청소년 및 위기(가능) 청소년 약물 및 도박 위기경험

항목	구분	일반		위기		전체		$\chi^2$	
		n	%	n	%	n	%		
1	지난 1년간 돈-물건갈취경험 (월1-2회이상)	해당없음	747	98	139	86.3	886	96.2	19.55*
		해당있음	15	2	22	13.7	37	3.8	
2	지난 1년간 돈-물건절도경험 (월1-2회이상)	해당없음	745	97.8	139	86.3	884	95.8	17.44
		해당있음	17	2.2	22	13.7	39	4.2	
3	지난 1년간 경찰서·법원 출두(2-3번)	해당없음	737	96.7	135	83.9	872	94.4	23.88
		해당있음	25	3.3	26	16.1	51	5.6	

\* $p < .05$ , \*\* $p < .01$ , \*\*\* $p < .001$

#### 마) 성 (성매매·성폭력·원치않는 임신 및 피해·가해)

강릉시 청소년의 성 관련 문제를 살펴본 결과, 위기(가능) 청소년은 모든 항목에서 일반 청소년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지난 1년간 성매매 사이트에 접속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전체의 3.4%로, 일반 청소년은 1.3%, 위기 청소년은 11.8%로 나타나 위기 청소년의 비율이 현저히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chi^2=44.67$ ,  $p < .001$ ). 성매매 유혹이나 권유를 받은 경험 역시 전체의 3.9%로, 일반 청소년 1.8%, 위기 청소년 13.7%로 집단 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chi^2=46.5$ ,  $p < .001$ ). 성매매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전체의 3.4%였으며, 일반 청소년 1.8%, 위기 청소년 10.3%로 확인되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chi^2=28.52$ ,  $p < .001$ ). 성폭력 피해 경험은 전체 3.2%로, 일반 청소년 1.7%, 위기 청소년 10.6%였으며( $\chi^2=30.37$ ,  $p < .001$ ), 성폭력 위협을 느낀 경험은 전체 4.1%, 일반 청소년 1.8%, 위기 청소년 14.1%로 나타났다( $\chi^2=50.34$ ,  $p < .001$ ). 성폭력 시도나 가해 경험 역시 전체 3.2%, 일반 청소년 1.6%, 위기 청소년 11.3%로 위기 청소년의 비율이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chi^2=36.00$ ,  $p < .001$ ). 또한 원치 않는 임신이나 출산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전체의 2.2%로, 일반 청소년은 1.4%, 위기 청소년은 5.6%로 위기 청소년의 비율이 약 4배 높았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chi^2=8.91$ ,  $p < .01$ ). 종합적으로 볼 때, 위기 청소년은 성매매, 성폭력 피해 및 가해, 임신 등 모든 성 관련 위험 행동에서 일반 청소년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을 보여, 성 인식 개선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집중적인 교육과 상담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Ⅲ-28> 일반 청소년 및 위기(가능) 청소년 성문제 전체 응답 빈도

항목		구분	전혀 없다	1년동안 1회	1년동안 2~3회	월 1~2회	주1~2회 이상	무 응답	
1	지난 1년간 성매매 사이트에 접속한 경험	일반	n	752	3	3	1	0	3
			%	98.7	0.4	0.4	0.1	0	0.4
		위험	n	142	6	10	2	1	0
			%	87.1	3.7	6.1	1.2	0.6	0
		전체	n	894	9	13	3	1	3
			%	96.6	1	1.4	0.3	0.1	0.3
2	지난 1년간 성매매 유혹 권유 받은 경험	일반	n	748	5	4	2	0	3
			%	98.2	0.7	0.5	0.3	0	0.4
		위험	n	139	7	12	2	1	0
			%	84.8	4.3	7.3	1.2	0.6	0
		전체	n	887	12	16	4	1	3
			%	95.9	1.3	1.7	0.4	0.1	0.3
3	지난 1년 간 성매매 경험	일반	n	748	3	5	2	0	4
			%	98.2	0.4	0.7	0.3	0	0.5
		위험	n	144	6	9	1	1	0
			%	86.7	3.6	5.4	0.6	0.6	0
		전체	n	892	9	14	3	1	4
			%	96.3	1	1.5	0.3	0.1	0.4
4	지난 1년간 성폭력 피해	일반	n	749	5	4	0	1	3
			%	98.5	0.7	0.5	0	0.1	0.4
		위험	n	144	6	9	2	0	0
			%	87.8	3.7	5.5	1.2	0	0
		전체	n	893	11	13	2	1	3
			%	96.4	1.2	1.4	0.2	0.1	0.3
5	지난 1년간 성폭력 위협을 느낀 경험	일반	n	748	6	3	2	0	3
			%	98.2	0.8	0.4	0.3	0	0.4
		위험	n	138	9	10	3	1	0
			%	84.1	5.5	6.1	1.8	0.6	0
		전체	n	886	15	13	5	1	3
			%	95.9	1.6	1.4	0.5	0.1	0.3
6	지난 1년간 성폭력 시도·가해	일반	n	750	6	3	0	0	3
			%	98.4	0.8	0.4	0	0	0.4
		위험	n	143	8	10	0	0	0
			%	87.7	4.9	6.1	0	0	0
		전체	n	893	14	13	0	0	3
			%	96.4	1.5	1.4	0	0	0.3

<표 Ⅲ-29> 일반 청소년 및 위기(가능) 청소년 성문제 위기경험 비교

항목	구분	일반		위기		전체		$\chi^2$	
		n	%	n	%	n	%		
1	지난 1년간 성매매사이트에 접속한경험 (1번이상)	해당없음	752	98.7	142	88.2	894	96.6	44.67***
		해당있음	10	1.3	19	11.8	29	3.4	
2	지난 1년간 성매매 유혹·권유받은 경험(1번이상)	해당없음	748	98.2	139	86.3	887	95.9	46.5***
		해당있음	14	1.8	22	13.7	36	3.9	
3	지난 1년간 성매매 경험(1번이상)	해당없음	748	98.2	144	89.4	892	96.3	28.52***
		해당있음	14	1.8	17	10.3	31	3.4	
4	지난 1년간 성폭력 피해(있음)	해당없음	749	98.3	144	89.4	893	96.3	30.37***
		해당있음	13	1.7	17	10.6	30	3.2	
5	지난 1년간 성폭력 위협을느낀경험 (1번이상)	해당없음	748	98.2	138	85.9	886	95.9	50.34***
		해당있음	14	1.8	23	14.1	37	4.1	
6	지난 1년간 성폭력 시도·가해 (1번이상)	해당없음	750	98.4	143	88.7	893	96.3	36***
		해당있음	12	1.6	18	11.3	30	3.2	
7	살면서 원치 않는 임신이나출산 경험(있음)	해당없음	751	98.6	152	94.4	9.3	97.8	8.91**
		해당있음	11	1.4	9	5.6	20	2.2	

\* $p < .05$ , \*\* $p < .01$ , \*\*\* $p < .001$

**바) 학대 (신체적 학대·정서적 학대·방임)**

강릉시 청소년의 학대 경험을 살펴본 결과, 위기(가능) 청소년은 모든 유형에서 일반 청소년보다 현저히 높은 비율을 보였다. 먼저, 지난 1년간 보호자로부터 신체적 학대를 월 1~2회 이상 경험한 비율은 일반 청소년이 0.39%, 위기 청소년이 2.48%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는 매우 낮은 비율이지만, 두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chi$

Ⅲ. 연구결과

$\chi^2=7.69, p<.05$ ). 또한, 집에서 내쫓김을 월 1~2회 이상 경험한 청소년은 일반 청소년 0.66%, 위기 청소년 2.48%로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였다( $\chi^2=4.58, p<.05$ ). 보호자의 언어폭력을 주 1~2회 이상 경험한 비율은 일반 청소년 0.91%, 위기 청소년 8.28%로, 학대 항목 중 상대적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난 부분이다. 위기 청소년의 경험률이 일반 청소년보다 약 9배 높았으며, 두 집단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였다( $\chi^2=10.58, p<.01$ ). 한편, 이유 없이 하루 이상 굶김을 주 1~2회 이상 경험한 청소년은 일반 청소년에서 사례가 없었고, 위기 청소년에서만 2.82%로 나타났다. 비록 전체 발생률은 낮지만 두 집단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chi^2=4.73, p<.05$ ). 아플 때 돌봄을 받지 못한 경험(월 1~2회 이상) 역시 일반 청소년 0.39%, 위기 청소년 4.35%로 나타났으며, 다섯 개 항목 중 가장 높은 유의 수준을 보여 집단 간 차이가 뚜렷하였다( $\chi^2=19.33, p<.001$ ). 종합하면, 위기 청소년은 신체적 학대, 언어폭력, 방임 등 다양한 형태의 학대를 경험할 가능성이 일반 청소년보다 훨씬 높으며, 위기 청소년이 가정 내에서 학대 위험에 더 취약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표 Ⅲ-30> 일반 청소년 및 위기(가능) 청소년 학대 전체 응답 빈도

항목		구분	전혀 없다	1년동안 1회	1년동안 2~3회	월 1~2회	주1~2회 이상	
1	지난 1년간 보호자가 신체적학대 (월1-2회이상)	일반	n	733	18	6	2	1
			%	94.7	2.3	0.8	0.3	0.1
		위험	n	137	7	13	3	1
			%	82	4.2	7.8	1.8	0.6
		전체	n	870	25	19	5	2
			%	92.1	2.6	2	0.5	0.2
2	지난 1년간 보호자가 집에서내쫓음 (월1-2회이상)	일반	n	733	17	5	4	1
			%	84.7	2.2	0.6	0.5	0.1
		위험	n	130	13	14	3	1
			%	77.4	7.7	8.3	1.8	0.6
		전체	n	863	30	19	7	2
			%	91.4	3.2	2	0.7	0.2
3	지난 1년간 보호자의 언어폭력경험 (주1-2회이상)	일반	n	703	25	23	3	5
			%	90.8	3.2	3	0.4	0.6
		위험	n	117	15	16	7	6
			%	70.1	9	9.6	4.2	3.6
		전체	n	820	40	39	10	11
			%	86.7	4.2	4.1	1.1	1.2

2025 강릉시청소년생활실태조사

항목		구분		전혀 없다	1년동안 1회	1년동안 2~3회	월 1~2회	주1~2회 이상
4	지난 1년간 보호자가이유없이	일반	n	748	3	9	0	0
			%	97	0.4	1.2	0	0
	하루이상굶김 (주1-2회이상)	위험	n	140	7	10	3	1
			%	82.8	4.1	5.9	1.8	0.6
		전체	n	888	10	19	3	1
			%	94.2	1.1	2	0.3	0.1
5	지난 1년간 보호자가	일반	n	732	14	11	2	1
			%	94.5	1.8	1.4	0.3	0.1
	아플때도방임 (월1-2회이상)	위험	n	132	6	16	3	4
			%	79.5	3.6	9.6	1.8	2.4
		전체	n	864	20	27	5	5
			%	91.5	2.1	2.9	0.5	0.5

<표 Ⅲ-31> 일반 청소년 및 위기(가능) 청소년 학대 위기경험 비교

항목	구분	일반		위기		전체		$\chi^2$	
		n	%	n	%	n	%		
1	지난 1년간 보호자가 신체적학대 (월1-2회이상)	해당없음	757	99.6	157	97.5	914	99.2	7.69*
		해당있음	3	0.4	4	2.5	7	0.8	
2	지난 1년간 보호자가 집에서내쫓음 (월1-2회이상)	해당없음	755	99.3	157	97.5	912	99.0	4.58*
		해당있음	5	0.6	4	2.5	9	0.98	
3	지난 1년간 보호자의 언어폭력경험 (주1-2회이상)	해당없음	754	99.1	144	91.7	898	97.9	10.58*
		해당있음	8	0.9	13	8.3	21	2.1	
4	지난 1년간 보호자가 이유없이 하루이상굶김 (주1-2회이상)	해당없음	760	100	136	97.2	896	99.6	4.73*
		해당있음	0	0	4	2.8	4	0.44	
5	지난 1년간 보호자가 아플때도방임 (월1-2회이상)	해당없음	757	99.6	154	95.7	911	98.9	19.33*
		해당있음	3	0.4	7	4.6	10	1.1	

\* $p < .05$ , \*\* $p < .01$ , \*\*\* $p < .001$

사) 자살

지난 1년간 자살 관련 위험은 일반 청소년보다 위기 청소년에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자살생각의 경우 일반 청소년의 7%가 '주 1~2회 이상' 빈도로 경험한 반면, 위기 청소년은 47%로 6배 이상 높았다. 자살계획 역시 일반 청소년 3.5%에 비해 위기 청소년은 32.2%로 크게 증가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자살 시도 경험에서도 위기 청소년은 18.6%로 일반 청소년(2.8%)보다 6배 이상 높아, 전반적으로 위기군의 심리·정서적 취약성이 매우 두드러졌다. 이러한 차이는 모든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 $\chi^2=15.02\sim58.11$ ,  $p<.001$ )으로 나타나, 위기 청소년에 대한 집중적인 자살예방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표 Ⅲ-32> 일반 청소년 및 위기(가능) 청소년 자살 전체 응답 빈도

항목		구분	전혀 없음	1년동안 1회	1년동안 2~3회	월 1~2회	주 1~2회 이상	무응답	
1	지난 1년간 자살 생각	일반	n	677	35	29	8	11	2
			%	88.6	4.6	3.8	1.0	1.4	0.26
		위험	n	79	18	28	18	18	0
			%	49.1	11.2	17.4	11.2	11.2	0
		전체	n	756	53	57	26	29	2
			%	81.7	5.7	6.2	2.8	3.1	0.22
2	지난 1년간 자살 계획	일반	n	734	14	6	5	1	2
			%	96.1	1.8	0.8	0.7	0.1	0.26
		위험	n	114	15	20	6	6	0
			%	70.8	9.3	12.4	3.7	3.7	0
		전체	n	848	29	26	11	7	2
			%	91.7	3.1	2.8	1.2	0.8	0.22
3	지난 1년간 자살 시도 경험	일반	n	739	14	5	1	1	2
			%	96.7	1.8	0.7	0.1	0.1	0.26
		위험	n	126	9	16	8	2	0
			%	78.3	5.6	9.9	5.0	1.2	0
		전체	n	865	23	21	9	3	2
			%	93.5	2.5	2.3	1.0	0.3	0.22

<표 Ⅲ-33> 일반 청소년 및 위기(가능) 청소년 자살 위기경험 비교

항목	구분	일반		위기		전체		$\chi^2$	
		n	%	n	%	n	%		
1	지난 1년간 자살생각 (주1-2회이상)	해당없음	677	89.6	79	53	756	83.7	34.57***
		해당있음	53	7	70	47	123	13.6	
2	지난 1년간 자살계획 (월1-2회이상)	해당없음	734	98	114	78.1	848	92.4	15.02***
		해당있음	26	3.5	47	32.2	73	7.9	
3	지난 1년간 자살시도경험 (1번이상)	해당없음	739	97.2	126	87	865	95	58.11***
		해당있음	21	2.8	27	18.6	48	5.3	

\* $p < .05$ , \*\* $p < .01$ , \*\*\* $p < .001$

### 아) 자해

강릉시 청소년의 자해 경험을 살펴본 결과, 위기(가능) 청소년은 모든 항목에서 일반 청소년보다 자해 행동을 보인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먼저 칼이나 날카로운 물건으로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전체의 11.4%로, 일반 청소년 7.1%, 위기 청소년 29.8%로 나타나 두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chi^2=47.22$ ,  $p < .001$ ). 고의로 자신을 때린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전체의 13.5%였으며, 일반 청소년 9.7%, 위기 청소년 33.5%로 위기 청소년의 비율이 약 3배 높게 나타났다( $\chi^2=42.55$ ,  $p < .001$ ). 몸의 상처를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뜯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전체의 14.0%로, 일반 청소년은 10.2%, 위기 청소년은 34.2%로 확인되어 역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chi^2=41.66$ ,  $p < .001$ ). 담배나 성냥 등으로 자신의 몸에 화상을 입힌 경험은 전체의 3.2%로, 일반 청소년 1.3%, 위기 청소년 11.2%로 집단 간 큰 차이가 나타났다( $\chi^2=23.44$ ,  $p < .001$ ). 또한 상처가 날 정도로 피부를 긁거나 꼬집은 경험은 전체의 11.6%, 일반 청소년 7.2%, 위기 청소년 34.8%였으며( $\chi^2=49.77$ ,  $p < .001$ ), 벽이나 책상에 머리를 부딪힌 경험 역시 전체의 10.4%, 일반 청소년 6.4%, 위기 청소년 28.6%로 위기 청소년의 비율이 훨씬 높았다( $\chi^2=38.55$ ,  $p < .001$ ). 마지막으로, 피부에 글자나 상징을 새긴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전체의 5.4%로, 일반 청소년 3.5%, 위기 청소년 15.5%로 확인되었

Ⅲ. 연구결과

으며 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chi^2=20.44$ ,  $p<.001$ ). 종합하면, 위기 청소년은 자해의 다양한 형태(도구 사용, 타격, 화상, 상처 방치 등)에서 일반 청소년보다 3~5배 높은 발생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위기 청소년이 극심한 정서적 불안과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자해 행동 예방을 위한 정서 안정 프로그램과 심리상담 지원이 시급히 강화되어야 한다.

<표 Ⅲ-34> 일반 청소년 및 위기(가능) 청소년 자해 전체 응답 빈도

단위: 명(%)

항목		구분	전혀 없음	1회	2회	3회	4회	5회 이상	무응 답	
1	칼이나 날카로운 물건으로 몸에 상처를 냈	일반	n	708	20	7	6	3	6	12
			%	92.91	2.62	0.92	0.79	0.39	0.79	1.57
		위험	n	113	10	15	5	4	10	4
			%	70.19	6.21	9.32	3.11	2.48	6.21	2.48
		전체	n	821	30	22	11	7	16	16
			%	87.49	3.2	2.34	1.17	0.75	1.71	1.71
2	고의로 나 자신을 때림	일반	n	688	30	10	12	0	15	7
			%	90.29	3.94	1.31	1.57	0	1.97	0.92
		위험	n	107	13	14	4	7	13	3
			%	70.19	8.52	9.17	2.62	4.58	8.52	1.97
		전체	n	795	43	24	16	7	28	10
			%	84.75	4.58	2.56	1.7	0.75	2.98	1.07
3	몸에 있는 상처를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뜯어냄	일반	n	684	36	17	7	2	12	4
			%	87.62	4.61	2.18	0.9	0.26	1.54	0.51
		위험	n	106	14	13	6	3	16	3
			%	71.14	9.4	8.72	4.03	2.01	10.74	2.01
		전체	n	790	50	30	13	5	28	7
			%	84.04	5.32	3.19	1.38	0.53	2.98	0.74

2025 강릉시청소년생활실태조사

항목		구분	전혀 없음	1회	2회	3회	4회	5회 이상	무응 답	
4	담배나 성냥 등으로 내 몸에 화상을 입힘	일반	n	752	1	3	1	0	1	4
			%	98.3	0.13	0.39	0.13	0	0.13	0.52
		위험	n	143	4	5	4	1	1	3
			%	90.51	2.53	3.16	2.53	0.63	0.63	1.9
		전체	n	895	5	8	5	1	2	7
			%	96.23	0.54	0.86	0.54	0.11	0.22	0.75
5	상처가 날 정도로 피부를 긁거나 꼬집음	일반	n	707	21	7	10	4	10	3
			%	91.53	2.72	0.91	1.29	0.52	1.29	0.39
		위험	n	105	22	9	6	1	13	5
			%	68.63	14.38	5.88	3.92	0.65	8.5	3.27
		전체	n	812	43	16	16	5	23	8
			%	86.09	4.56	1.7	1.7	0.53	2.44	0.85
6	벽이나 책상에 머리를 부딪힘	일반	n	713	49	20	8	9	3	3
			%	88.3	6.05	2.47	0.99	1.11	0.37	0.37
		위험	n	115	17	11	8	1	6	3
			%	76.16	11.26	7.28	5.3	0.66	3.97	1.99
		전체	n	828	66	31	16	1	9	6
			%	84.28	6.71	3.16	1.63	1.02	0.92	0.61
7	피부에 글자나 상징 같은 것을 새김	일반	n	742	6	7	1	1	2	3
			%	96.7	0.78	0.91	0.13	0.13	0.26	0.39
		위험	n	136	9	2	4	3	4	3
			%	88.31	5.85	1.3	2.6	1.95	2.6	1.95
		전체	n	878	15	9	5	4	6	6
			%	93.46	1.6	0.96	0.53	0.43	0.64	0.64

<표 Ⅲ-35> 일반 청소년 및 위기(가능) 청소년 자해 위기 경험 비교

항목	구분	일반		위기		전체		$\chi^2$	
		n	%	n	%	n	%		
1	칼이나 날카로운 물건으로 몸에 상처를냄(1번이상)	해당없음	708	92.9	113	70.2	821	88.6	47.22*
		해당있음	54	7.1	48	29.8	102	11.4	
2	고의로 나 자신을 때림(1번이상)	해당없음	688	90.3	107	66.5	795	86.5	42.55*
		해당있음	74	9.7	54	33.5	128	13.5	
3	몸에 있는 상처를 치료하지않고 방치하거나 뜯어냄(1번이상)	해당없음	684	89.8	106	65.8	790	86	41.66*
		해당있음	78	10.2	55	34.2	133	14	
4	담배나 성냥 등으로 내몸에화상을 입힘(1번이상)	해당없음	752	98	143	88.8	895	96.8	23.44*
		해당있음	10	1.3	18	11.2	28	3.2	
5	상처가 날 정도로 피부를긁거나 꼬집음(1번이상)	해당없음	707	92.8	105	65.2	812	88.4	49.77*
		해당있음	55	7.2	56	34.8	111	11.6	
6	벽이나 책상에 머리를부딪침(1번 이상)	해당없음	713	93.6	115	71.4	828	89.6	38.55*
		해당있음	49	6.4	46	28.6	95	10.4	
7	피부에 글자나 상징 같은 것을 새김(1번이상)	해당없음	742	96.5	136	84.5	878	94.6	20.44*
		해당있음	20	3.5	25	15.5	45	5.4	

\* $p < .05$ , \*\* $p < .01$ , \*\*\* $p < .001$

**자) 가출 (가출상태·가출횟수·가출기간)**

강릉시 청소년의 가출 경험을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지난 1년 동안 가출을 경험한 청소년은 매우 소수였으나, 위기 청소년의 가출 경험 비율이 일반 청소년보다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 지난 1년간 가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일반 청소년이 93.73%로 높은 반면, 위기 청소년은 81.65%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특히 1년 동안 2~3회 가출했다고 응답한 위기 청소년은 10.13%로, 일반 청소년의 0.78%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를 보였다. 가출 기간을 살펴보면, 일반 청소년의 가출은 주로 1~2일(76.56%)에 머무르는 반면, 위기 청소년은 6~9일(23.26%) 또는 10일 이상 가출 기간이 길어지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보다 심각한 가출 위험을 시사하였다. 가출의 위기 수준별 경험을 비교한 결과에서도 위기 청소년이 전반적으로 높은 위험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가출한 상태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일반 청소년이 1.05%였던 반면, 위기 청소년은 7.45%로 약 7배 이상 높은 비율을 보였다. 또한 지난 1년 동안 4~5회 이상 반복적 가출 경험이 있는 비율도 위기 청소년(2.6%)이 일반 청소년(0.41%)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마지막으로 '가출팸'과 함께 생활한 경험에서도 위기 청소년은 5.06%로 일반 청소년의 0.26%에 비해 크게 높아(p<.001), 위기 청소년들이 반복적·장기적·집단적 가출 위험에 더욱 많이 노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Ⅲ-36> 일반 청소년 및 위기(가능) 청소년 가출 전체 응답 빈도

항목		구분	없다	1년동안 1회	1년동안 2-3회	1년동안 4~5회	1년동안 6회 이상	무응답	
1	지난 1년 동안가출 경험	일반	n	717	14	6	2	1	25
			%	93.73	1.83	0.78	0.26	0.13	3.27
		위기	n	129	2	16	2	2	7
			%	81.65	1.27	10.13	1.27	1.27	4.43
		전체	n	846	16	22	4	3	32
			%	91.66	1.73	2.38	0.43	0.33	3.47

<표 Ⅲ-37> 일반 청소년 및 위기(가능) 청소년 가출 기간 전체 응답 빈도

항목	구분	1~2일	3~5일	6~9일	10~30일	한달 이상	무응답	
1	일반	n	49	9	2	1	2	1
		%	76.56	14.06	3.13	1.56	3.13	1.56
	위험	n	21	7	10	3	0	2
		%	48.84	16.28	23.26	6.98	0	2
	전체	n	70	16	12	4	2	4.65
		%	65.42	14.95	11.21	3.74	1.87	3

<표 Ⅲ-38> 일반 청소년 및 위기(가능) 청소년 가출 위기 경험 비교

항목	구분	일반		위기		전체		$\chi^2$	
		n	%	n	%	n	%		
1	현재 가출한 상태	해당없음	754	98.95	149	92.55	903	7.63	13.43*
		해당있음	8	1.05	12	7.45	20	2.16	
2	지난 1년 동안 가출경험 (4~5회이상)	해당없음	734	99.59	150	97.4	884	98.88	5.29*
		해당있음	3	0.41	4	2.6	7	0.78	
3	1회 평균 가출기간 (6~9일이상)	해당없음	58	92.06	28	68.29	86	84.31	7.56**
		해당있음	5	7.94	13	31.71	18	17.65	
4	가출팸 생활 경험	해당없음	754	99.74	150	94.94	904	98.47	14.89***
		해당있음	2	0.26	8	5.06	10	1.09	

\* $p < .05$ , \*\* $p < .01$ , \*\*\* $p < .001$

#### 차) 학업중단(무단결석), 학업중단 숙려제

강릉시 청소년의 학업중단(무단결석) 및 학업중단 숙려제 상담 경험을 살펴본 결과, 위기(가능) 청소년이 일반 청소년보다 현저히 높은 비율을 보였다. 먼저 지난 1년 동안 무단으로 결석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전체의 5.3%로, 일반 청소년은 3.0%, 위기 청소년은 16.1%로 위기 청소년의 비율이 약 5배 이상 높았으며, 두 집단 간 차이는 통계

적으로 매우 유의하였다( $\chi^2=43.01, p<.001$ ). 또한 학업중단숙려제 상담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전체의 5.1%였으며, 일반 청소년은 3.4%, 위기 청소년은 13.0%로 나타나 역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chi^2=23.56, p<.001$ ).

이러한 결과는 위기 청소년이 학업 지속에 어려움을 겪거나 학교 부적응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주며, 단순한 결석이나 상담 참여를 넘어 학업중단 위험군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위기 청소년에 대한 학업 유지 지원과 조기 개입 중심의 학교-지역사회 협력체계 강화가 필요하다.

<표 Ⅲ-39> 일반 청소년 및 위기(가능) 청소년 학업중단(무단결석) 전체 응답 빈도

항목		구분	전혀 없다	1년동안 1회	1년동안 2~3회	월 1~2회	주1~2회 이상	무 응답	
1	지난 1년 동안 무단으로 결석한 경험	일반	n	739	8	10	2	1	2
			%	96.98	1.05	1.31	0.26	0.13	0.26
		위기	n	135	5	14	4	3	0
			%	83.85	3.11	8.7	2.48	1.86	0
		전체	n	874	13	24	6	4	2
			%	94.69	1.41	2.6	0.65	0.43	0.22

<표 Ⅲ-40> 학업중단(무단결석) 청소년 및 학업중단숙려제 경험 청소년 비교

항목	구분	일반		위기		전체		$\chi^2$	
		n	%	n	%	n	%		
1	지난 1년 동안 무단으로 결석한 경험	해당없음	739	96.99	135	83.86	874	94.69	43.01***
		해당있음	23	3.01	26	16.14	49	5.31	
2	학업중단숙려제 상담 경험	해당없음	736	96.59	140	86.96	876	94.92	23.56***
		해당있음	26	3.41	21	13.04	47	5.08	

\* $p<.05$ , \*\* $p<.01$ , \*\*\* $p<.001$

**카) 직장생활 경험**

강릉시 청소년의 일 경험 관련 조사 결과, 일반 청소년과 위기 청소년 모두에서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일반 청소년의 경우 82.92%가 아르바이트나 직업훈련, 직장생활 등 어떠한 일 경험도 없다고 응답하여, 대다수가 아직 노동시장과의 접점이 적음을 보여준다. 반면 위기 청소년은 74.53%가 일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여 일반 청소년보다 일 경험을 가진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르바이트 경험은 위기 청소년이 18.63%로 일반 청소년의 13.67%보다 높아, 위기 청소년이 경제활동에 더 일찍 노출되는 경향이 확인된다. 직업훈련기관 참여 경험 역시 위기 청소년이 4.35%로 일반 청소년의 2.76%보다 높아 진로 준비 활동에서 위기 청소년의 참여도가 상대적으로 더 크다. 직장생활 경험에서도 위기 청소년은 2.48%로 일반 청소년의 1.18%보다 두 배 이상 높아 실제 노동시장 진입 경험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위기 청소년이 생계 부담, 가정 환경, 학업 중단 등으로 인해 경제활동에 더 빨리 참여하게 되는 구조적 요인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위기 청소년은 일반 청소년에 비해 아르바이트·직업훈련·직장생활 등 다양한 일 경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지원 체계 강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Ⅲ-41> 아르바이트·직업훈련기관·직장생활 경험이 있는 청소년 분포

항목		없다		아르바이트		직업훈련기관		직장생활	
		n	%	n	%	n	%	n	%
일반	768	631	82.92	104	13.67	21	2.76	9	1.18
위기	163	120	74.53	30	18.63	7	4.35	4	2.48
전체	932	752	80.69	134	14.38	28	3	13	1.4

\* $p < .05$ , \*\* $p < .01$ , \*\*\* $p < .001$

## 다. 성별에 따른 위험요인, 보호요인, 위기경험 비교

### 1) 성별에 따른 위험 요인 비교

성별에 따른 위험요인을 비교한 결과, 전반적으로 남녀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개인 요인에서는 남학생이 우울·불안(남 M=0.83, 여 M=0.96)보다 다소 낮고, 공격성·충동성·부주의(남 M=0.82, 여 M=0.77)는 약간 높았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가정 요인에서도 부모 간 갈등(남 M=0.56, 여 M=0.52)과 부모와의 갈등·방임(남 M=0.40, 여 M=0.39)은 유사한 수준으로, 성별 차이는 미미했다. 학교 요인(학교생활 부적응)에서도 남학생(M=0.67), 여학생(M=0.71) 간 차이는 거의 없었으며, 지역사회 요인(유해환경 노출)에서도 남학생(M=0.53), 여학생(M=0.59)으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또한 가족 및 또래 관련 위험요인에서도 성별 간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가정 요인에서 문제 가족원(소년원·교도소 입소자) 비율은 남학생 4.9%, 여학생 3.0%였으며, 약물·알코올 중독 가족은 남학생 6.9%, 여학생 6.0%, 가출경험 가족은 남학생 9.6%, 여학생 7.4%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또래 요인에서도 주 2회 이상 음주하는 비행 친구가 있는 경우 남학생 10.7%, 여학생 12.6%, 가출 경험이 있는 친구는 남학생 11.0%, 여학생 8.8%, 경찰 조사 경험이 있는 친구는 남학생 12.3%, 여학생 7.9%, 폭력서클 소속 친구는 남학생 5.1%, 여학생 2.8%로 나타났으나,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성별에 따른 위험요인 수준은 대체로 비슷하며, 남녀 모두 개인·가정·학교·지역사회 등 다차원적 요인에서 유사한 수준의 위험 요인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42> 성별에 따른 위험요인 평균 비교

구분		남자		여자		t
		M	SD	M	SD	
개인	우울·불안	0.83	1.04	0.96	1.03	-1.58
개인	공격성·충동성·부주의	0.82	1.02	0.77	1.01	0.73
가정	부모 간 갈등	0.56	0.91	0.52	0.80	0.59
가정	부모와의 갈등·방임	0.40	0.74	0.39	0.73	0.19
학교	학교생활 부적응	0.67	1.03	0.71	1.01	-0.55
지역사회	지역사회 유해환경	0.53	0.85	0.59	0.86	-0.87

\* $p < .05$ , \*\* $p < .01$ , \*\*\* $p < .001$ , ns = no significant

<표 Ⅲ-43> 성별에 따른 위험요인(문제가족원 · 비행친구) 비교

단위: 명(%)

구분				남자	여자	전체	$\chi^2$	
가정	문제가족원	소년원·교도소 입소	없다	n	426	456	882	1.33
			%	93.80	96.61	95.24		
			있다	n	22	14	36	
		%	4.85	2.97	3.89			
		무응답	n	4	1	5		
		%	0.88	0.21	0.54			
	약물·알코올 중독	없다	n	417	442	859	0.41	
			%	93.08	94.03	93.56		
		있다	n	31	28	59		
			%	6.92	5.95	6.44		
	가출경험	없다	n	405	435	840	0.51	
			%	90.41	92.56	91.51		
있다		n	43	35	78			
		%	9.59	7.44	8.49			
또래	비행친구	주2회 이상 음주	없다	n	400	413	813	0.72
			%	89.23	91.19	90.22		
		있다	n	48	57	105		
			%	10.71	12.61	11.65		

구분				남자	여자	전체	$\chi^2$
	가출경험	없다	n	394	430	824	1.35
			%	88.97	94.33	91.57	
		있다	n	54	40	94	
			%	11.03	8.77	9.43	
	경찰·지구대 조사받음	없다	n	393	433	826	1.67
			%	87.72	92.13	89.95	
		있다	n	55	37	92	
			%	12.28	7.87	10.05	
	폭력서클 소속	없다	n	425	457	882	1.34
			%	93.63	96.58	95.17	
		있다	n	23	13	36	
			%	5.07	2.75	3.89	
무응답		n	5	1	6		
		%	1.10	0.21	0.65		

\*  $p < .05$ , \*\*  $p < .01$ , \*\*\*  $p < .001$ , ns = no significant

## 2) 성별에 따른 보호 요인 비교

성별에 따른 보호 요인을 비교한 결과, 전반적으로 남녀 간 큰 차이는 없었으나 지역사회 영역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개인 요인인 자기존중감·목표의식·적극적 대처에서는 남학생(M=2.89)과 여학생(M=2.83)의 평균 차이가 거의 없었으며, 가정 요인인 가족의 관심과 신뢰 또한 남학생(M=3.11), 여학생(M=3.09)으로 유사한 수준이었다. 학교 요인(교사의 관심과 관계) 역시 남학생(M=2.80), 여학생(M=2.84)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또래 요인(친구관계)에서도 남학생(M=3.18), 여학생(M=3.22)으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반면 지역사회 보호 요인(지지체계·지원프로그램)에서는 남학생(M=2.46)이 여학생(M=2.26)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t=2.38$ ,  $p < .05$ ), 이는 남학생이 지역사회 내 지원망이나 보호체계의 도움을 더 체감하거나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전체적으로 볼 때, 남녀 청소년 모두 가정과 또래 관계에서 높은 보호 요인을 보이며, 특히 가족과 친구 관계가 주요한 심리적 지지 기반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Ⅲ-44> 성별에 따른 보호요인 평균 비교

구분		남자		여자		t
		M	SD	M	SD	
개인	자기존중감·목표의식·적극적인대처	2.89	0.97	2.83	0.90	0.81
가정	가족의 관심·신뢰	3.11	0.95	3.09	0.89	0.45
학교	교사의 관심·관계	2.80	1.10	2.84	0.99	-0.54
지역사회	지지체계·지원프로그램	2.46	1.23	2.26	1.15	2.38
또래	친구관계	3.18	0.99	3.22	0.91	-0.72

\* $p < .05$ , \*\* $p < .01$ , \*\*\* $p < .001$ , ns = no significant

### 3) 성별에 따른 위기 경험 비교

#### 가)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남녀 모두 높은 수준의 스마트폰 사용을 보였으나, 여학생이 인터넷·스마트폰 과사용으로 계획된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비율이 더 높았다( $p < .05$ ). 하루 3~4시간 이상 사용하는 비율은 남학생 72.3%, 여학생 80.2%로 전반적으로 과다 사용 경향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사용으로 인한 갈등, 초조감 등에서는 성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Ⅲ-45> 성별에 따른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위기경험 비교

항목		구분		남자	여자	전체	$\chi^2$
1	지난 1달간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으로인해 타인과심한 갈등을일으킴	해당없음	n	308	335	643	0.47
			%	68.75	71.28	70.03	
		해당있음	n	140	135	275	
			%	31.25	28.72	29.97	
2	지난 1달간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으로인해 계획한일들을 제대로못함	해당없음	n	239	216	455	5.59*
			%	53.37	45.96	49.57	
		해당있음	n	209	254	463	
			%	46.63	54.04	50.43	
3	지난 1달간 인터넷·스마트폰 3~4시간사용	해당없음	n	124	93	217	3.27
			%	27.68	19.79	23.33	
		해당있음	n	324	377	701	
			%	72.32	80.21	76.67	
4	지난 1달간 게임이나 채팅하느라 일상생활못함	해당없음	n	288	299	587	0.12
			%	64.30	63.00	63	
		해당있음	n	160	171	331	
			%	35.70	36.37	36.04	
5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하지 못하면안절부절 못하고초조해짐	해당없음	n	400	399	799	2.25
			%	89.29	84.91	87.09	
		해당있음	n	48	71	119	
			%	10.71	15.09	12.91	

\* $p < .05$ , \*\* $p < .01$ , \*\*\* $p < .001$ , ns = no significant

나) 약물(술·담배·본드 등) 및 도박

남녀 모두에서 술, 담배, 마약류 사용 경험은 매우 낮게 나타났으며, 성별 차이도 없었다. 다만 남학생의 도박 경험(1.1%)이 여학생(0%)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p < .05$ ). 이는 일부 남학생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도박 게임에 노출될 위험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표 Ⅲ-46> 성별에 따른 약물 및 도박 위기경험 비교

항목		구분		남자	여자	전체	$\chi^2$
1	지난 1달간 술을마심 (거의매일)	해당없음	n	439	466	905	0.4
			%	98.88	99.36	99.13	
		해당있음	n	5	3	8	
			%	1.12	0.64	0.54	
2	지난 1달간 담배를피움 (거의매일)	해당없음	n	438	463	901	0.08
			%	98.65	98.51	98.58	
		해당있음	n	6	7	13	
			%	1.35	1.49	1.42	
3	지난 1달간 마약류사용 (주1-2회이상)	해당없음	n	441	468	909	0.78
			%	98.88	99.57	99.23	
		해당있음	n	5	2	7	
			%	1.12	0.43	0.77	
4	지난 1달간 돈을 걸고 하는온오프라인 게임을함 (주1-2회이상)	해당없음	n	441	470	911	5.09*
			%	98.88	100.00	99.56	
		해당있음	n	5	0	5	
			%	1.12	0.00	0.55	

\* $p < .05$ , \*\* $p < .01$ , \*\*\* $p < .001$ , ns = no significant

**다) 학교폭력 피해·가해**

학교폭력 피해는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다만 신체적 폭력 피해(남 3.1%, 여 0.4%)와 금품갈취 피해(남 2.5%, 여 0.4%)에서 남학생이 더 높게 나타나( $p < .05 \sim .01$ ), 남학생이 물리적 폭력이나 갈취 피해를 상대적으로 더 경험하는 경향이 있었다. 언어폭력, 사이버폭력 등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남녀 모두 학교폭력 가해 경험은 1% 미만 수준으로 매우 낮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신체적·언어적 폭력, 사이버폭력, 따돌림, 금품갈취 등 모든 항목에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학교폭력 가해 행동은 성별과 무관하게 드물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47> 성별에 따른 학교폭력 피해 위기경험 비교

항목		구분		남자	여자	전체	$\chi^2$
1	지난 1년간 신체폭력당함 (월1-2회이상)	해당없음	n	432	467	899	7.62**
			%	96.86	99.57	98.26	
		해당있음	n	14	2	16	
			%	3.14	0.43	1.74	
2	지난 1년간 언어폭력당함 (주1-2회이상)	해당없음	n	431	464	895	2.61
			%	96.85	98.72	97.8	
		해당있음	n	14	6	20	
			%	3.15	1.28	2.2	
3	지난 1년간 따돌림·괴롭힘당함 (주1-2회이상)	해당없음	n	441	467	908	0.35
			%	98.88	99.36	99.13	
		해당있음	n	5	3	8	
			%	1.12	0.64	0.87	
4	지난 1년간 돈·물건을강제로 빼앗김 (월1-2회이상)	해당없음	n	435	473	908	6.25*
			%	7.54	99.58	98.71	
		해당있음	n	11	2	13	
			%	2.46	0.42	1.29	

Ⅲ. 연구결과

항목		구분		남자	여자	전체	$\chi^2$
5	지난 1년간 사이버폭력당함 (월1-2회이상)	해당없음	n	440	467	907	0.28
			%	98.66	99.36	99.02	
		해당있음	n	6	3	9	
			%	1.34	0.64	0.98	

\* $p < .05$ , \*\* $p < .01$ , \*\*\* $p < .001$ , ns = no significant

<표 Ⅲ-48> 성별에 따른 학교폭력 가해 위기경험 비교

항목		구분		남자	여자	전체	$\chi^2$
1	지난 1년간 신체폭력가함 (월1-2회이상)	해당없음	n	441	465	906	0.01
			%	99.10	99.15	99.13	
		해당있음	n	4	4	8	
			%	0.90	0.85	0.87	
2	지난 1년간 언어폭력가함 (주1-2회이상)	해당없음	n	442	468	910	0.27
			%	99.10	99.57	99.34	
		해당있음	n	4	2	6	
			%	0.90	0.43	0.66	
3	지난 1년간 따돌림·괴롭힘 (주1-2회이상)	해당없음	n	445	470	915	0.22
			%	99.78	100.00	99.89	
		해당있음	n	1	0	1	
			%	0.22	0.00	0.11	
4	지난 1년간 돈·물건을강제로 빼앗음 (월1-2회이상)	해당없음	n	440	468	908	2.91
			%	98.65	99.79	99.23	
		해당있음	n	6	1	7	
			%	1.35	0.21	0.77	
5	지난 1년간 사이버폭력가함 (월1-2회이상)	해당없음	n	444	468	912	0.03
			%	99.33	99.57	99.45	
		해당있음	n	3	2	5	
			%	0.67	0.43	0.55	

\* $p < .05$ , \*\* $p < .01$ , \*\*\* $p < .001$ , ns = no significant

**라) 비행 (갈취·절도·사법적 문제)**

대체로 비행 수준은 낮았으나, 절도 경험에서 남학생(6.3%)이 여학생(2.3%)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p < .05$ ). 금품 갈취나 경찰·법원 출두 경험 등에서도 남학생이 약간 높게 나타났지만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남학생이 물질적 비행이나 사법 노출 가능성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Ⅲ-49> 성별에 따른 비행 위기경험 비교

항목		구분		남자	여자	전체	$\chi^2$
1	지난 1년간 돈·물건갈취경험 (월1-2회이상)	해당없음	n	438	468	906	3.51
			%	98.21	99.57	98.91	
		해당있음	n	8	2	10	
			%	1.79	0.43	1.09	
2	지난 1년간 돈·물건절도경험 (월1-2회이상)	해당없음	n	420	459	879	3.92*
			%	93.75	97.66	95.66	
		해당있음	n	28	11	39	
			%	6.25	2.34	4.34	
3	지난 1년간 경찰서·법원 출두(2-3번)	해당없음	n	427	462	889	1.98
			%	95.94	98.29	97.12	
		해당있음	n	18	8	26	
			%	4.06	1.71	2.85	

\* $p < .05$ , \*\* $p < .01$ , \*\*\* $p < .001$ , ns = no significant

마) 성 (성매매·성폭력·원치 않는 임신. 피해·가해)

성 관련 위기 경험 전반에서 성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다만 성매매 사이트 접속, 성매매 경험, 성폭력 피해 등은 남학생이 다소 높게, 원치 않는 임신 경험은 여학생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전반적으로 성 관련 위기 경험은 전체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표 Ⅲ-50> 성별에 따른 성 문제 위기경험 비교

항목		구분		남자	여자	전체	χ <sup>2</sup>
1	지난 1년간 성매매사이트에 접속한경험(1번이상)	해당없음	n	429	460	889	1.48
			%	95.75	97.87	96.84	
		해당있음	n	19	10	29	
			%	4.25	2.13	3.16	
2	지난 1년간 성매매 유혹 권유받은경험 (1번이상)	해당없음	n	427	455	882	0.32
			%	95.57	96.81	96.21	
		해당있음	n	21	15	36	
			%	4.43	3.19	3.79	
3	지난 1년간 성매매 경험(1번이상)	해당없음	n	427	460	887	1.48
			%	95.57	97.87	96.72	
		해당있음	n	21	10	31	
			%	4.43	2.13	3.28	
4	지난 1년간 성폭력 피해(있음)	해당없음	n	427	461	888	3.07
			%	95.57	98.09	96.81	
		해당있음	n	21	9	30	
			%	4.43	1.91	3.19	
5	지난 1년간 성폭력 위협을느낀경험 (1번이상)	해당없음	n	425	456	881	1.24
			%	95.11	97.00	96.06	
		해당있음	n	23	14	37	
			%	4.89	3.00	3.94	
6	지난 1년 간 성폭력 시도·가해(1번이상)	해당없음	n	427	461	888	3.07
			%	95.57	98.09	96.81	
		해당있음	n	21	9	30	
			%	4.43	1.91	3.19	
7	살면서 원치 않는 임신이나출산경험 (있음)	해당없음	n	436	462	898	0.39
			%	37.32	98.29	97.81	
		해당있음	n	12	8	20	
			%	2.68	1.71	2.19	

\*p<.05, \*\*p<.01, \*\*\*p<.001, ns = no significant

**바) 학대 (신체적 학대·정서적 학대·방임)**

남녀 모두에서 학대 경험은 매우 낮았으며(1~2% 미만), 신체적·언어적 학대, 방임 모두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전반적으로 부모에 의한 신체적 학대나 방임은 드물게 나타났으며, 가정 내 학대 경험은 성별과 관계없이 거의 동일한 수준이었다.

<표 Ⅲ-51> 일반 청소년 및 위기(가능) 청소년 학대 위기경험 비교

항목		구분		남자	여자	전체	χ <sup>2</sup>
1	지난 1년간 보호자가신체적 학대(월1-2회이상)	해당없음	n	443	466	909	0.14
			%	99.33	98.99	99.16	
		해당있음	n	3	4	7	
			%	0.67	0.85	0.76	
2	지난 1년간 보호자가집에서 내쫓음 (월1-2회이상)	해당없음	n	441	467	908	0.42
			%	98.88	99.36	99.12	
		해당있음	n	5	3	8	
			%	1.12	0.64	0.88	
3	지난 1년간 보호자의언어폭력 경험(주1-2회이상)	해당없음	n	440	464	904	0.08
			%	98.66	98.94	98.8	
		해당있음	n	6	5	11	
			%	1.34	1.06	1.2	
4	지난 1년간 보호자가이유없이 하루이상굶김 (주1-2회이상)	해당없음	n	445	470	915	0.9
			%	99.78	100.00	99.89	
		해당있음	n	1	0	1	
			%	0.22	0.00	0.11	
5	지난 1년간 보호자가아플때도 방임(월1-2회이상)	해당없음	n	440	466	906	0.33
			%	98.66	99.15	98.91	
		해당있음	n	6	4	10	
			%	1.34	0.85	1.09	

\*p<.05, \*\*p<.01, \*\*\*p<.001, ns = no significant

사) 자살

자살 관련 경험은 여학생이 약간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여학생은 자살생각(4.0%), 자살계획(2.6%)에서 남학생(2.2%, 1.3%)보다 다소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러나 자살시도 경험은 남녀 모두 비슷한 수준으로, 심리적 위기 요인은 여학생에서 조금 더 뚜렷하지만 행동화에는 차이가 미미했다.

<표 Ⅲ-52> 성별에 따른 자살 위기경험 비교

항목		구분		남자	여자	전체	$\chi^2$
1	지난 1년간 자살생각 (주1-2회이상)	해당없음	n	436	451	887	2.89
			%	97.76	95.96	96.86	
		해당있음	n	10	19	29	
			%	2.24	4.04	3.16	
2	지난 1년간 자살계획 (월1-2회이상)	해당없음	n	440	458	898	1.93
			%	98.66	97.45	98.04	
		해당있음	n	6	12	18	
			%	1.34	2.55	1.96	
3	지난 1년간 자살시도경험 (1번이상)	해당없음	n	416	444	860	1.58
			%	92.86	94.46	93.67	
		해당있음	n	32	26	58	
			%	7.14	5.54	6.33	

\* $p < .05$ , \*\* $p < .01$ , \*\*\* $p < .001$ , ns = no significant

**아) 자해**

자해 경험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특히 칼이나 날카로운 물건으로 상처를 낸 경험( $p < .01$ ), 피부를 긁거나 꼬집은 경험( $p < .05$ ), 화상을 입힌 경험( $p < .05$ ) 등에서 여학생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여학생이 내면화된 정서적 위기를 자해 형태로 표현하는 경향이 강함을 시사한다.

<표 Ⅲ-53> 성별에 따른 자해 위기경험 비교

항목		구분		남자	여자	전체	$\chi^2$
1	칼이나 날카로운 물건으로 몸에 상처를냄(1번이상)	해당없음	n	408	410	818	7.28**
			%	91.08	87.23	89.14	
		해당있음	n	40	60	100	
			%	8.92	12.77	10.86	
2	고의로 나 자신을 때림(1번이상)	해당없음	n	386	405	791	0.28
			%	86.16	86.17	86.17	
		해당있음	n	62	65	127	
			%	13.84	13.83	13.83	
3	몸에 있는 상처를 치료하지않고 방치하거나 뜯어냄(1번이상)	해당없음	n	385	402	787	0.11
			%	85.92	85.55	85.73	
		해당있음	n	63	68	131	
			%	14.08	14.45	14.27	
4	담배나 성냥 등으로 내몸에화상을 입힘(1번이상)	해당없음	n	429	461	890	5.74*
			%	95.75	98.08	96.93	
		해당있음	n	19	9	28	
			%	4.25	1.92	3.07	
5	상처가 날 정도로 피부를긁거나 꼬집음(1번이상)	해당없음	n	405	404	809	5.42*
			%	90.38	85.97	88.15	
		해당있음	n	43	66	109	
			%	9.62	14.03	11.85	
6	벽이나 책상에 머리를부딪침 (1번이상)	해당없음	n	404	420	824	0.22
			%	90.19	89.38	89.78	
		해당있음	n	44	50	94	
			%	9.81	10.62	10.22	

항목		구분		남자	여자	전체	$\chi^2$
7	피부에 글자나 상징 같은것을새김 (1번이상)	해당없음	n	422	451	873	1.46
			%	90.99	95.96	93.48	
		해당있음	n	26	19	45	
			%	9.01	4.04	6.52	

\* $p < .05$ , \*\* $p < .01$ , \*\*\* $p < .001$ , ns = no significant

### 자) 가출

가출 관련 경험은 전반적으로 낮았으며, 성별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현재 가출 중인 청소년은 2% 내외, 가출 경험(4~5회 이상)은 남학생 6.6%, 여학생 3.1%로 남학생이 다소 높았다. 가출팸 생활 경험도 남학생(2.7%)이 여학생(1.5%)보다 약간 많았다.

<표 Ⅲ-54> 성별에 따른 청소년 가출 경험 비교

항목		구분		남자	여자	전체	$\chi^2$
1	현재 가출한 상태	해당없음	n	436	462	898	0.74
			%	97.32	98.29	97.81	
		해당있음	n	12	8	20	
			%	2.68	1.71	2.19	
2	지난 1년간 가출경험 (4-5번이상)	해당없음	n	407	435	842	3.62
			%	93.36	96.89	95.09	
		해당있음	n	29	14	43	
			%	6.64	3.11	4.91	
3	1회 평균 가출 기간 (6-9일이상)	해당없음	n	57	27	84	0.04
			%	82.61	81.82	82.35	
		해당있음	n	12	6	18	
			%	17.39	18.18	17.65	
4	가출팸 생활 경험	해당없음	n	436	463	899	0.4
			%	97.32	98.51	97.93	
		해당있음	n	12	7	19	
			%	2.68	1.49	20.7	

\* $p < .05$ , \*\* $p < .01$ , \*\*\* $p < .001$ , ns = no significant

**차) 학업중단**

무단결석에서는 남학생(7.1%)이 여학생(3.6%)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 $p < .05$ ), 학업 중단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러나 학업중단 숙려제 상담 경험은 성별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전반적으로 남학생이 학업 관련 부적응이나 무단결석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표 Ⅲ-55> 성별에 따른 학업중단 청소년 및 학업중단숙려제 경험 청소년 비교

항목		구분		남자	여자	전체	$\chi^2$
1	무단결석	해당없음	n	416	453	869	4.41*
			%	92.86	96.39	94.67	
		해당있음	n	32	17	49	
			%	7.14	3.61	5.33	
2	학업중단 숙려제 상담	해당없음	n	427	445	872	0.66
			%	95.31	94.67	94.99	
		해당있음	n	21	25	46	
			%	4.69	5.33	5.01	

\* $p < .05$ , \*\* $p < .01$ , \*\*\* $p < .001$ , ns = no significant

## 라. 소속기관에 따른 위험요인,보호요인 위기경험 비교

### 1) 소속기관에 따른 위험요인 비교

위험요인은 전반적으로 큰 차이가 없었으나, '부모와의 갈등·방임'에서만 유의한 차이 ( $p<.05$ )가 나타났다. 기타기관 청소년이 가장 높고, 고등학교, 중학교 순으로 나타나 가정 내 정서적 단절이나 방임이 기타기관 청소년에서 두드러짐을 보여준다. 학교생활 부적응과 지역사회 유해환경 등은 기관 간 차이가 없었다.

<표 Ⅲ-56> 소속기관에 따른 위험요인 비교

구분		중학교		고등학교		기타기관		F	Scheffe
		M	SD	M	SD	M	SD		
개인	우울불안	0.90	1.06	0.89	1.02	1.03	1.11	1.92	
	공격성·충동성·부주의	0.84	1.03	0.74	1.01	0.82	1.02	0.78	
가정	부모 간 갈등	0.54	0.87	0.55	0.86	0.62	0.91	0.65	
	부모와의 갈등·방임	0.33	0.67	0.45	0.80	0.52	0.83	4.13*	기타기관 > 고등학교 > 중학교
학교	학교생활 부적응	0.61	0.95	0.74	1.05	1.01	1.22	1.01	
지역사회	지역사회 유해환경	0.52	0.81	0.60	0.89	0.60	0.86	0.60	

\*  $p<.05$ , \*\*  $p<.01$ , \*\*\*  $p<.001$ , ns = no significant

## 2) 소속기관에 따른 보호요인 비교

보호요인에서는 학교와 또래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 $p < .05 \sim .001$ )가 있었다. 교사의 관심·관계, 친구관계 모두 중·고등학교 학생이 기타기관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학교 재학생들이 교사나 친구로부터의 사회적 지지를 더 경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개인, 가정, 지역사회 요인은 기관 간 큰 차이가 없었다.

<표 Ⅲ-57> 소속기관에 따른 약물 및 도박 위기경험 비교

구분		중학교		고등학교		기타기관		F	Scheffe
		M	SD	M	SD	M	SD		
개인	자기존중감·목표의식·적극적인 대처	2.81	0.94	2.92	0.91	2.7	1.03	1.24	
가정	가족의 관심·신뢰	3.1	0.91	3.1	0.93	2.97	1	0.46	
학교	교사의 관심·관계	2.82	1.06	2.85	1	2.56	1.22	3.57*	중학교 = 고등학교 > 기타기관
지역사회	지지체계·지원프로그램	2.34	1.20	2.38	1.18	2.28	1.24	0.32	
또래	친구관계	3.28	0.88	3.20	0.93	2.58	1.35	8.61***	중학교 = 고등학교 > 기타기관

\* $p < .05$ , \*\* $p < .01$ , \*\*\* $p < .001$ , ns = no significant

3) 소속기관에 따른 위기경험 비교

가)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인터넷·스마트폰 과다 사용은 모든 기관에서 높았으나, 중학생이 타인과 갈등을 경험하거나 사용을 제어하지 못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p < .01$ ). 또한 기타기관 청소년은 일상생활이 방해되는 비율이 높았고, 전체적으로 기타기관·중학교에서 중독 위험이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

<표 Ⅲ-58> 소속기관에 따른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위기경험 비교

항목		구분	중학교	고등학교	기타기관	전체	$\chi^2$	
1	지난 1달간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타인과심한 갈등을 일으킴	해당없음	n	302	295	37	634	6.71**
			%	65.95	74.87	68.52	70	
		해당있음	n	156	99	17	272	
			%	34.05	25.13	31.48	30	
2	지난 1달간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계획한 일들을 제대로 못함	해당없음	n	230	193	27	450	5.84*
			%	50.00	48.99	50.00	49.64	
		해당있음	n	228	201	27	456	
			%	50.00	51.01	50.00	50.36	
3	지난 1달간 인터넷·스마트폰 3~4시간 사용	해당없음	n	92	109	14	215	12.36***
			%	20.09	27.68	25.93	23.39	
		해당있음	n	366	285	40	691	
			%	79.91	72.32	74.07	76.61	
4	지난 1달간 게임이나 채팅하느라 일상생활 못함	해당없음	n	304	251	27	582	8.15**
			%	66.38	63.71	50.00	63.37	
		해당있음	n	154	143	27	324	
			%	33.62	36.29	50.00	36.63	
5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하지 못하면 안전절부절 못하고 초조해짐	해당없음	n	403	343	43	789	5.21*
			%	89.52	87.06	79.63	87.44	
		해당있음	n	55	51	11	117	
			%	10.48	12.94	20.37	12.56	

\* $p < .05$ , \*\* $p < .01$ , \*\*\* $p < .001$ , ns = no significant

**나) 약물(술·담배·본드 등) 및 도박(온·오프라인)**

고등학교와 기타기관 청소년에서 약물 및 도박 관련 위험이 유의하게 높았다 ( $p < .001$ ). 특히 기타기관 청소년은 술(27.8%), 담배(20.4%), 마약(11.1%) 사용률이 높아, 학교 밖 청소년 집단의 물질 사용 위험이 심각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중학생은 전반적으로 사용 비율이 가장 낮았다.

<표 Ⅲ-59> 소속기관에 따른 약물 및 도박 위기경험 비교

항목		구분		중학교	고등학교	기타기관	전체	$\chi^2$
1	지난 1달간 술을마심 (거의매일)	해당없음	n	432	333	39	8.4	54.92***
			%	94.31	84.53	72.22	89.77	
		해당있음	n	26	61	15	102	
			%	5.69	15.47	27.78	10.23	
2	지난 1달간 담배를피움 (거의매일)	해당없음	n	447	351	43	841	72.88***
			%	97.60	89.09	79.63	91.28	
		해당있음	n	11	43	11	65	
			%	2.40	10.91	20.37	7.05	
3	지난 1달간 마약류사용 (주1-2회이상)	해당없음	n	447	365	48	860	20.74***
			%	7.60	92.62	88.89	94.73	
		해당있음	n	11	29	6	46	
			%	2.40	7.38	11.11	5.07	
4	지난 1달간 돈을 걸고하는 온오프라인 게임을함 (주1-2회이상)	해당없음	n	447	366	49	862	14.26***
			%	97.60	92.89	90.74	94.86	
		해당있음	n	11	28	5	44	
			%	2.40	7.11	9.26	5.14	

\* $p < .05$ , \*\* $p < .01$ , \*\*\* $p < .001$ , ns = no significant

**다) 학교폭력 피해·가해**

학교폭력 피해는 대체로 낮았으나, 따돌림·금품갈취 피해에서 유의한 차이( $p<.05$ )가 나타났다. 기타기관 청소년이 신체적·경제적 피해를 경험할 가능성이 가장 높았으며, 고등학생이 그 다음이었다. 전반적으로 학교 외 기관 청소년이 폭력 피해에 더 노출되는 경향을 보였다. 학교폭력 가해 경험은 낮지만, 신체폭력·언어폭력·금품갈취·사이버폭력 가해 모두에서 중학생이 가장 높게 나타남( $p<.05\sim.01$ ). 이는 초기 청소년기의 충동성 및 또래 중심 문화가 폭력행동으로 연결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기타기관 청소년도 일부 항목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 Ⅲ-60> 소속기관에 따른 학교폭력 피해 위기경험 비교

항목		구분	중학교	고등학교	기타기관	전체	$\chi^2$	
1	지난 1년간 신체폭력당함 (월1-2회이상)	해당없음	n	419	368	49	836	1.84
			%	91.49	93.42	90.74	92.24	
		해당있음	n	39	26	5	70	
			%	8.51	6.58	9.26	7.72	
2	지난 1년간 언어폭력당함 (주1-2회이상)	해당없음	n	392	352	49	793	1.84
			%	95.59	89.34	90.74	87.47	
		해당있음	n	66	42	5	113	
			%	14.41	10.66	9.26	12.53	
3	지난 1년간 따돌림·괴롭힘당함 (주1-2회이상)	해당없음	n	425	359	48	832	5.11*
			%	92.79	19.13	88.89	91.89	
		해당있음	n	33	35	6	74	
			%	7.21	8.87	11.11	8.11	
4	지난 1년간 돈·물건을강제로 빼앗김 (월1-2회이상)	해당없음	n	443	374	49	866	4.36*
			%	96.72	4.92	90.74	95.55	
		해당있음	n	15	20	5	40	
			%	3.28	5.08	9.26	4.45	
5	지난 1년간 사이버폭력당함 (월1-2회이상)	해당없음	n	437	372	48	857	3.22
			%	95.41	94.41	88.89	94.32	
		해당있음	n	21	22	6	49	
			%	4.59	5.59	11.11	5.68	

\* $p<.05$ , \*\* $p<.01$ , \*\*\* $p<.001$ , ns = no significant

<표 Ⅲ-61> 소속기관에 따른 학교폭력 가해 위기경험 비교

항목		구분		중학교	고등학교	기타기관	전체	$\chi^2$
1	지난 1년간 신체폭력가함 (월1-2회이상)	해당없음	n	414	375	49	838	9.72**
			%	90.40	95.18	90.74	92.03	
		해당있음	n	44	19	5	68	
			%	9.60	4.82	9.26	7.47	
2	지난 1년간 언어폭력가함 (주1-2회이상)	해당없음	n	409	368	49	826	5.63*
			%	89.31	93.40	90.74	91.04	
		해당있음	n	49	26	5	80	
			%	10.69	6.66	9.26	8.96	
3	지난 1년간 따돌림·괴롭힘 (주1-2회이상)	해당없음	n	441	377	49	867	3.18
			%	96.29	95.69	90.74	95.03	
		해당있음	n	17	17	5	39	
			%	3.71	4.31	9.26	4.27	
4	지난 1년간 돈·물건을 강제로빼앗음 (월1-2회이상)	해당없음	n	448	376	49	873	7.02**
			%	97.82	95.43	90.74	95.95	
		해당있음	n	10	18	5	33	
			%	2.18	4.57	9.26	3.63	
5	지난 1년간 사이버폭력가함 (월1-2회이상)	해당없음	n	450	377	50	877	6.12*
			%	98.25	95.69	92.59	96.43	
		해당있음	n	8	17	4	29	
			%	1.75	4.31	7.41	3.19	

\* $p<.05$ , \*\* $p<.01$ , \*\*\* $p<.001$ , ns = no significant

**라) 비행 (갈취·절도·사법적 문제)**

비행 관련 항목 모두에서 기타기관 청소년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p < .05 \sim .01$ ), 경찰서나 법원 출두 경험도 기타기관(11.1%)이 중·고등학교보다 월등히 높았다. 학교 밖 청소년의 사법적 노출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음이 드러났다.

<표 Ⅲ-62> 소속기관에 따른 비행 위기경험 비교

항목		구분		중학교	고등학교	기타기관	전체	$\chi^2$
1	지난 1년간 돈·물건갈취경험 (월1-2회이상)	해당없음	n	445	377	49	871	4.63*
			%	97.16	95.69	90.74	95.7	
		해당있음	n	13	17	5	35	
			%	2.84	4.31	9.26	3.84	
2	지난 1년간 돈·물건절도경험 (월1-2회이상)	해당없음	n	443	377	49	869	3.92*
			%	96.72	95.69	90.74	95.5	
		해당있음	n	15	17	5	37	
			%	3.28	4.31	9.26	4.06	
3	지난 1년간 경찰서·법원 출두(2-3번)	해당없음	n	435	374	48	857	6.81**
			%	94.98	94.93	88.89	94.59	
		해당있음	n	23	20	6	49	
			%	5.02	5.07	11.11	5.41	

\* $p < .05$ , \*\* $p < .01$ , \*\*\* $p < .001$ , ns = no significant

**마) 성 (성매매·성폭력·원치 않는 임신, 피해·가해)**

성 관련 위기 경험은 기타기관 청소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p < .05$ ). 성매매 사이트 접속, 성매매 경험, 원치 않는 임신 모두 기타기관 청소년이 중·고등학교보다 훨씬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는 학교 밖 청소년 청소년의 성적 위험노출이 현저히 높음을 보여준다.

<표 Ⅲ-63> 소속기관에 따른 성 문제 위기경험 비교

항목		구분		중학교	고등학교	기타기관	전체	$\chi^2$
1	지난 1년간 성매매사이트에 접속한경험 (1번이상)	해당없음	n	450	379	49	878	6.41*
			%	98.25	96.20	90.74	96.59	
		해당있음	n	8	15	5	28	
			%	1.75	3.80	9.26	3.08	
2	지난 1년간 성매매유혹 권유받은 경험(1번이상)	해당없음	n	451	383	53	887	3.12
			%	98.47	97.21	98.15	97.9	
		해당있음	n	7	11	1	19	
			%	1.53	2.79	1.85	2.1	
3	지난 1년간 성매매경험 (1번이상)	해당없음	n	449	379	49	877	3.64
			%	98.03	96.19	90.74	96.51	
		해당있음	n	9	15	5	29	
			%	1.97	3.81	9.26	3.19	
4	지난 1년간 성폭력피해(있음)	해당없음	n	445	377	48	870	2.77
			%	97.17	95.69	88.89	95.64	
		해당있음	n	13	17	6	36	
			%	2.83	4.31	11.11	3.96	
5	지난 1년간 성폭력위협을 느낀경험 (1번이상)	해당없음	n	448	379	50	877	1.64
			%	97.82	96.19	92.59	96.5	
		해당있음	n	10	15	4	29	
			%	2.18	3.81	7.41	3.2	
6	지난 1년간 성폭력시도·가해 (1번이상)	해당없음	n	447	379	50	876	1.37
			%	97.61	96.19	92.59	96.48	
		해당있음	n	11	15	4	30	
			%	2.39	3.81	7.41	3.31	
7	살면서 원치 않는 임신이나출산 경험(있음)	해당없음	n	447	377	47	871	5.52*
			%	97.61	95.69	87.04	95.53	
		해당있음	n	11	17	7	35	
			%	2.39	4.31	12.96	4.47	

\* $p < .05$ , \*\* $p < .01$ , \*\*\* $p < .001$ , ns = no significant

**바) 학대(신체적 학대·정서적 학대·방임)**

대부분의 학대 경험은 기관 간 큰 차이가 없었으나, '이유 없이 굶김' 항목에서 기타 기관 청소년이 높게 나타나( $p<.05$ ) 생활기반이 취약한 청소년일수록 방임 위험이 크다는 점을 시사했다. 기타 항목(신체적·언어적 학대 등)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표 Ⅲ-64> 일반 청소년 및 위기(가능) 청소년 학대 위기경험 비교

항목		구분		중학교	고등학교	기타기관	전체	$\chi^2$
1	지난 1년간 보호자가신체적 학대(월1-2회이상)	해당없음	n	434	371	49	854	0.88
			%	94.76	94.17	90.74	94.29	
		해당있음	n	24	23	5	52	
			%	5.24	5.83	9.26	5.71	
2	지난 1년간 보호자가집에서 내쫓음 (월1-2회이상)	해당없음	n	429	370	48	847	2.26
			%	93.67	93.89	88.89	93.15	
		해당있음	n	29	24	6	59	
			%	6.33	6.11	11.11	6.85	
3	지난 1년간 보호자의언어폭력 경험(주1-2회이상)	해당없음	n	403	357	45	8.5	3.23
			%	88.00	90.60	83.33	88.9	
		해당있음	n	55	37	9	101	
			%	12.0	9.4	16.67	10.98	
4	지난 1년간 보호자가이유없이 하루이상굶김 (주1-2회이상)	해당없음	n	447	376	49	872	4.71*
			%	97.61	95.43	90.74	96.3	
		해당있음	n	11	18	5	34	
			%	2.39	4.57	9.26	3.7	
5	지난 1년 간 보호자가아플 때도방임(월1-2회 이상)	해당없음	n	432	369	48	849	1.69
			%	94.30	93.65	88.89	93.88	
		해당있음	n	26	25	6	57	
			%	5.70	6.35	11.11	6.32	

\* $p<.05$ , \*\* $p<.01$ , \*\*\* $p<.001$ , ns = no significant

**아) 자살**

자살 관련 위험은 기타기관 청소년에서 현저히 높았다( $p < .05 \sim .001$ ). 자살생각(27.8%), 계획(26.4%), 시도(18.9%) 모두 중·고등학교 학생보다 월등히 높았다. 이는 학교 밖 청소년이 정서적·심리적 위기 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표 III-65> 소속기관에 따른 자살 위기경험 비교

항목		구분		중학교	고등학교	기타기관	전체	$\chi^2$
1	지난 1년간 자살생각 (주1-2회이상)	해당없음	n	370	332	39	741	3.84*
			%	80.95	84.47	72.22	82.05	
		해당있음	n	87	61	15	163	
			%	19.05	15.53	27.78	17.95	
2	지난 1년간 자살계획 (월1-2회이상)	해당없음	n	431	362	39	832	6.72**
			%	94.93	92.83	73.58	91.52	
		해당있음	n	23	28	14	65	
			%	5.07	7.17	26.42	8.48	
3	지난 1년간 자살시도경험 (1번이상)	해당없음	n	440	367	43	850	10.18***
			%	97.78	94.85	81.13	95.24	
		해당있음	n	10	20	10	40	
			%	2.22	5.15	18.87	4.48	

\* $p < .05$ , \*\* $p < .01$ , \*\*\* $p < .001$ , ns = no significant

**아) 자해**

자해 경험은 기관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p < .05 \sim .01$ ), 기타기관 청소년의 자해율이 가장 높았다. 특히 '피부를 긁거나 꼬집음', '글자나 상징을 새김' 등의 항목에서 차이가 두드러졌다. 이는 학교 밖 청소년 청소년의 정서 불안과 자기손상 행동이 더 빈번함을 의미한다.

<표 Ⅲ-66> 소속기관에 따른 자해 위기경험 비교

항목		구분		중학교	고등학교	기타기관	전체	$\chi^2$
1	칼이나 날카로운 물건으로몸에 상처를냄 (1번이상)	해당없음	n	406	358	43	807	8.15
			%	90.25	92.31	82.69	90.68	
		해당있음	n	44	30	9	83	
			%	9.75	7.69	17.31	9.32	
2	고의로 나자신을때림 (1번이상)	해당없음	n	387	348	45	780	3.87*
			%	85.43	89.20	84.91	86.92	
		해당있음	n	66	42	8	116	
			%	14.57	10.78	15.09	13.08	
3	몸에 있는 상처를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뜯어냄(1번이상)	해당없음	n	378	356	43	777	5.61**
			%	83.07	91.05	81.13	86.43	
		해당있음	n	77	35	10	122	
			%	16.93	8.95	18.87	13.57	
4	담배나 성냥 등으로내몸에 화상을입힘 (1번이상)	해당없음	n	450	378	51	879	10.44**
			%	99.12	96.67	94.44	97.78	
		해당있음	n	4	13	3	20	
			%	0.88	3.33	5.56	2.22	
5	상처가 날 정도로 피부를긁거나 꼬집음(1번이상)	해당없음	n	394	361	43	798	4.79*
			%	86.60	92.60	81.13	88.87	
		해당있음	n	61	29	10	100	
			%	13.40	7.40	18.87	11.13	
6	벽이나 책상에 머리를부딪침 (1번이상)	해당없음	n	411	358	45	814	2.99
			%	90.33	91.81	83.33	89.55	
		해당있음	n	44	32	9	85	
			%	9.67	8.19	16.67	10.45	
7	피부에 글자나 상징같은 것을 새김(1번이상)	해당없음	n	438	376	48	862	7.28*
			%	96.26	96.17	81.36	94.63	
		해당있음	n	17	15	11	43	
			%	3.74	3.83	18.64	5.37	

\* $p < .05$ , \*\* $p < .01$ , \*\*\* $p < .001$ , ns = no significant

**자) 가출**

가출 경험은 대체로 낮았으나, 기타기관 청소년이 현재 가출 중이거나 가출팸 생활을 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평균 가출 기간 역시 기타기관이 가장 길었으며, 학교 밖 청소년의 생활 불안정성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표 III-67> 소속기관에 따른 청소년 가출 경험 비교

항목		구분	중학교	고등학교	기타기관	전체	$\chi^2$	
1	현재 가출한 상태	해당없음	n	451	383	53	887	1.64
			%	98.5	97.2	98.1	98.1	
		해당있음	n	7	11	1	19	
			%	1.5	2.8	1.9	1.9	
2	지난 1년간 가출경험 (4-5번이상)	해당없음	n	420	363	48	831	3.41
			%	95.4	95.1	90.6	94.8	
		해당있음	n	20	19	5	44	
			%	4.6	4.9	9.4	5.2	
3	1회 평균 가출 기간 (6-9일이상)	해당없음	n	41	27	2	70	8.92*
			%	78.8	61.4	33.3	68.0	
		해당있음	n	11	17	4	32	
			%	21.2	38.6	66.7	32.0	
4	가출팸 생활 경험	해당없음	n	451	385	52	888	3.02
			%	97.9	96.5	92.9	96.9	
		해당있음	n	10	14	4	28	
			%	2.1	3.5	7.1	3.1	

\* $p<.05$ , \*\* $p<.01$ , \*\*\* $p<.001$ , ns = no significant

**차) 학업중단**

소속기관에 따른 학업중단 관련 경험을 비교한 결과, 무단결석과 학업중단 숙려제 상담 모두에서 기타기관 청소년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무단결석 경험은 기타기관에서 16.7%로 중학생(3.1%), 고등학생(5.6%)보다 월등히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chi^2=27.41^*$ ,  $p<.05$ ). 이는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지속 어려움과 교육 체계 내 이탈 위험이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표 Ⅲ-68> 소속기관에 따른 학업중단 청소년 및 학업중단숙려제 경험 청소년 비교

항목		구분		중학교	고등학교	기타기관	전체	$\chi^2$
1	무단결석	해당없음	n	444	372	45	861	27.41*
			%	96.9	94.4	83.3	100	
		해당있음	n	14	22	9	45	
			%	3.1	5.6	16.7	100	
2	학업중단 숙려제 상담	해당없음	n	450	377	34	861	124.94*
			%	98.3	95.7	63.0	100	
		해당있음	n	8	17	20	45	
			%	1.7	4.3	37.0	100	

\* $p < .05$ , \*\* $p < .01$ , \*\*\* $p < .001$ , ns = no significant

## IV. 요약

본 연구는 강릉시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과 더불어 일반 청소년과 위기(가능) 청소년의 위험요인, 보호요인, 위기경험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였다. 조사 결과, 청소년의 대다수는 '보통'의 경제수준과 안정된 가정환경을 인식하고 있었으나, 위기 청소년은 정서적·물질적 지원 수준이 낮고, 지지자원의 폭이 제한적이었다. 청소년 지원기관의 인지도는 높았지만 실제 이용률은 매우 낮았으며, 이는 청소년 복지서비스의 접근성과 연계성이 부족함을 보여준다. 또한 청소년들은 대면상담을 가장 선호하며, 상담에 있어 '이해와 공감'을 가장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기 청소년은 개인적(우울·불안, 충동성), 가정적(부모갈등, 방임), 학교적(부적응), 지역사회적(유해환경) 요인 모두에서 위험수준이 높고, 자기존중감·가족관계·교사 및 또래 지지 등의 보호요인이 낮았다. 특히 자살생각·시도, 자해, 학대, 성폭력, 비행 등 복합적 위기경험이 일반 청소년보다 현저히 높아 다차원적 개입이 요구된다. 성별 비교에서는 여학생이 자해나 정서적 위기에, 남학생이 외현적 행동문제(도박, 절도, 폭력 등)에 더 취약한 경향을 보였다. 또한 소속기관별로는 학교 밖 청소년(기타기관)이 부모와의 갈등·방임, 물질남용, 자살 및 자해, 성적위험 등 거의 모든 위기지표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여, 학교 밖 청소년 청소년의 심리적·사회적 불안정성이 두드러졌다.

### 가. 연구 참여 위기 청소년 실태

강릉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성별에 따른 위기 청소년 비율은 남학생 16.9%, 여학생 17.4%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소속기관별로는 중학생이 가장 많았으며(42.8%), 인문계 고등학생(36.6%)이 그 뒤를 이었다. 거주 지역은 포남동과 교동에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 대다수 청소년은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국적은 양쪽 모두 한국인인 경우가 94.6%로 압도적이었으며, 경제 수준은 '보통이

다'(69.8%)가 가장 많았다. 국가나 단체의 지원을 받지 않은 응답자가 절반 이상(51.9%)을 차지했으며, 위기 청소년은 일반 청소년에 비해 물질적·정서적 지원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경향을 보였다.

사회적 지지 자원 측면에서 일반 청소년의 절반 이상(52.1%)이 '4명 이상'의 지지 자원을 가지고 있는 반면, 위기 청소년은 '2~3명'(43.4%) 수준에 머물러 사회적 지지망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지원 기관에 대한 인지도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54.2%)와 '청소년쉼터'(52.1%)가 높았지만, 실제 이용률은 매우 낮았다. 상담 선호도 조사에서는 일반 청소년과 위기 청소년 모두 '대면 개인상담'을 가장 선호했으며, 상담에 대한 기대는 '내 이야기를 듣고 이해해줬으면 한다'가 가장 많았다. 특히 위기 청소년은 정서적 공감뿐만 아니라 현실적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가 높아, 정서적·실질적 지원을 병행할 수 있는 상담체계의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 나. 일반 청소년과 위기 청소년의 위험·보호요인, 위기 경험 비교

강릉시 청소년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중심으로 일반 청소년과 위기 청소년의 생활 실태 및 위기 경험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위기 청소년은 개인, 가정, 학교, 지역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일반 청소년보다 위험요인이 높고 보호요인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기 청소년은 우울·불안, 충동성 등 정서적 불안정뿐만 아니라 부모 간 갈등, 학교생활 부적응, 유해환경 노출 등 다차원적 위험 환경에 놓여 있었다. 반면, 자기존중감과 가족·교사·또래의 지지 등 보호요인 수준은 낮게 나타나, 심리·사회적 회복탄력성 강화를 위한 다중 보호체계 구축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또한 위기 청소년은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음주·흡연·도박 등 약물 사용,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 비행, 성 관련 문제, 학대, 자살 및 자해, 가출, 학업중단 등 거의 모든 위기 경험 영역에서 일반 청소년보다 유의하게 높은 비율을 보였다. 특히 자살사고·시도, 자해행동, 학대 및 성폭력 피해는 위기 청소년에서 현저히 높아, 심리적 위기 개입과 가족·학교·지역사회의 연계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위기 청소년의 복합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서적 안정과 생활기능 회복을 목표로 한 통합적 지원체계와 조기 개입 중심의 맞춤형 청소년 복지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다. 성별에 따른 위험요인, 보호요인, 위기경험 비교

성별에 따른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비교한 결과, 전반적으로 남녀 간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개인·가정·학교·지역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위험 수준은 유사하였으며, 남학생은 공격성·충동성이 다소 높고 여학생은 우울·불안이 약간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보호요인 역시 대체로 비슷했으나, 지역사회 영역에서만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사회적 지지나 지원체계의 도움을 더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5$ ). 전반적으로 남녀 청소년 모두 가족과 친구 관계에서 높은 보호요인을 보였으며, 가족 및 또래 관계가 주요한 심리적 안정 요인으로 작용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위기경험에서는 일부 영역에서 성별 차이가 확인되었다. 여학생은 인터넷·스마트폰 과사용으로 계획된 일을 수행하지 못한 비율이 높았고( $p < .05$ ), 자해 경험(특히 칼이나 날카로운 물건으로 상처를 내거나 피부를 긁는 등)이 남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p < .05 \sim .01$ ). 반면 남학생은 도박( $p < .05$ ), 절도( $p < .05$ ), 신체적 폭력 피해( $p < .01$ )에서 더 높은 비율을 보여, 외현적 문제행동의 위험이 다소 높았다. 자살생각·계획은 여학생이 약간 높았으나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고, 학업 중단이나 무단결석은 남학생에게서 더 많이 나타났다( $p < .05$ ). 전반적으로 여학생은 내면화된 정서적 위기, 남학생은 행동화된 외현적 위험을 경험하는 경향을 보여, 성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심리·사회적 개입이 요구된다.

## 라. 소속기관에 따른 위험요인, 보호요인, 위기경험 비교

소속기관별로 위험요인, 보호요인, 위기경험을 비교한 결과, 위험요인은 전반적으로 큰 차이가 없었으나 '부모와의 갈등·방임'에서만 유의한 차이( $p < .05$ )가 나타났다. 기타기관 청소년이 가장 높았으며, 이는 학교 밖 청소년일수록 가정 내 정서적 단절과 방임이 두드러짐을 보여준다. 보호요인에서는 학교와 또래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 $p < .05 \sim .001$ )가 확인되었으며, 교사의 관심과 친구관계 모두 중·고등학생이 기타기관 청소년보다 높게 나타났다. 즉, 학교 재학생은 교사 및 또래 관계를 통해 사회적 지지를 더 많이 경험하는 반면, 기타기관 청소년은 관계적 지지망이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위기경험에서는 기관 간 차이가 다수 확인되었다. 인터넷·스마트폰 중독은 중학교와 기타기관에서 더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약물(술·담배·마약) 및 도박 경험은 고등학교와 특히 기타기관 청소년에게서 현저히 높았다( $p < .001$ ). 학교폭력 피해는 기타기관 청소년이, 가해는 중학생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비행(절도·갈취·사법기관 출두), 성 관련 위험(성매매, 임신 등) 역시 기타기관 청소년이 두드러졌다( $p < .05 \sim .01$ ). 또한 학대 중 '이유 없이 굶김'( $p < .05$ ), 자살생각·계획·시도( $p < .001$ ), 자해( $p < .01$ ), 가출, 학업중단 경험 모두에서 기타기관 청소년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 밖 청소년이 가정적·정서적 지지망이 약하고, 물질적·심리적 위기 노출 위험이 가장 높으며, 자살·자해 등 심리적 위기 수준이 심각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 심리지원, 가족기능 회복, 대안교육 및 사회적 지지체계 확충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 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강릉시 청소년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그리고 위기경험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지역 청소년 복지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위기 청소년은 정서적 불안정, 가족갈등, 사회적 고립 등 다양한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있었으며, 보호적 기능을 담당해야 할 가족·학교·지역사회의 지지체계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은 부모와의 단절, 방임 경험, 물질사용, 자해·자살 사고 등 복합적 위기 상황에 가장 많이 노출된 집단으로 확인되어, 이들을 대상으로 한 집중적 개입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또한 인터넷 과의존 위험군이 증가한 점은 지역 청소년의 디지털 환경 변화가 심화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발표한 전국 단위 실태조사(2023)에서 보고된 증가 추세와 유사한 양상이다. 다만, 본 조사와 국가 단위 조사는 측정 도구와 판정 기준에 차이가 있어 두 결과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통계적 제한이 있으며, 해석 시 유의가 필요하다.

본 조사에서는 인터넷 사용 시간이 모든 집단(일반군 및 위험군)에서 증가하고, 가족갈등이 높아진 경향이 관찰되었다. 이는 인터넷 과의존이 개인의 사용 습관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가정 내 의사소통 방식과 정서적 상호작용 변화와 연관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가족갈등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측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갈등 증가가 곧바로 인터넷 사용 증가의 결과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기존 연구에서는 가족관계 개선이 청소년의 인터넷 과의존 완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Young, 2015), 본 연구에서 나타난 가족 갈등 증가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함의를 재확인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은 청소년 위기 예방 및 회복을 위해 정서적·가족적·사회적 보호체계가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하는 종합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논의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 1)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 지원체계 구축

청소년 위기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속적으로 개입하기 위해서는 학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의료기관, 경찰 등 관계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사례관리를 중심으로 정서상담, 심리치유, 생활지원 등이 연계된 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서비스의 연속성과 접근성을 확보해야 한다.

### 2) 인터넷 과의존 예방-발견-사후관리 연계 강화

인터넷 사용 증가와 위험군 확대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 자기조절 기반 프로그램의 정기적인 운영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특히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과의존 예방 사업을 확장하여 예방-조기발견-사후관리로 이어지는 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 3) 가족 기반 상담 및 부모역량 강화

가족 내 갈등 증가와 지지체계 약화는 위험요인의 중요한 요소로 확인된다. 따라서 가족 상담 및 부모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부모의 디지털 사용 지도 역량을 높이고, 갈등 조기개입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가정이 청소년 보호체계의 핵심 축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 갈등의 직접적 원인이 파악되지 않았으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가족관계, 갈등 요인, 디지털 사용 간의 인과적 관계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 4) 정서·심리 지원체계 강화

위기 청소년의 정서적 취약성을 고려하여 상담자의 전문성 강화, 장기적·안정적 관계 형성이 가능한 상담 구조 마련, 공감적 이해에 기반한 상담환경 조성 등이 요구된다. 특히 대면상담 선호 경향을 반영한 지속 상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 5) 위험요인 기반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정서문제, 또래 갈등, 가정 스트레스 등 본 조사에서 확인된 주요 위험요인을 기반으로 고위험군·중위험군·일반군을 구분한 단계별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전국 공통 매뉴얼에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개입의 실효성을 높이고, 부모교육 및 가족기능 강화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보호체계를 보완해야 한다.

## 6)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용 활성화 및 접근성 개선

기관 인지도는 높으나 실제 이용률이 낮다는 점을 고려하여 접근성 향상을 위한 다각적 전략이 필요하다. 온라인·채팅상담, SNS 홍보, 모바일 중심 서비스 확대, 이동상담 등 다양한 접근 방식을 통해 청소년의 실질적 이용률을 높일 수 있다.

결론적으로, 강릉시 청소년의 위기 대응은 단일 기관의 역할로 한계가 있으며, 학교·가정·지역사회가 연계된 통합적·지속적 지원체계 구축 및 활성화가 필수적이다. 정서적 공감과 현실적 지원을 결합한 맞춤형 정책이 마련될 때, 청소년들은 스스로의 삶을 회복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강릉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2022). 2022년 강릉시청소년생활실태조사
- 교육부, 질병관리청. (2023).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통계자료집*. 교육부·질병관리청
- 대한민국 법제처.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성평등가족부. (2023). *청소년기본계획*. 성평등가족부.
- 성평등가족부. (2024). 2024 청소년통계.
- 한국교육개발원. (2025). 교육통계 서비스.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3). *2023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한국지능정보 사회진흥원.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16). *2016년 전국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
- 행정안전부(2025). 행정동별 주민등록 인구통계.
- 황순길, 김동민, 강태훈, 손재환, 김지혜. (2016). 전국 청소년 위기실태 및 위기결과 분석. *청소년복지연구*, 18(4), 47-70.
- Young, K. S. (2015). *Internet addiction: A handbook and guide to evaluation and treatment*. Hoboken, NJ: John Wiley & Sons.

## 부 록

### 2025년 청소년 생활 실태조사 (만 13세~24세)

안녕하세요.강릉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에 의거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를 위해 동법시행령 제14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등)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청소년 상담·교육·보호 전문기관입니다.

본 설문지는 강릉시 청소년들의 생각과 생활경험을 묻는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향후 강릉시 청소년을 위한 제도나 지원을 마련하는데 소중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설문 예상 소요시간은 약 15분~20분 정도이며, 응답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어 학교나 보호자에게 알려지지 않으므로 솔직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릉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드림



2025 강릉시청소년생활실태조사

(6) 성덕동 : 입암동, 청량동, 두산동, 학동, 병산동, 남항진동

(7) 경포동 : 유천동, 지변동, 죽헌동, 대전동, 운정동, 난곡동, 저동, 안현동

6. 현재 누구와 살고 있습니까? (모두 체크하세요.)

- ① 친아버지 ( )
- ② 친어머니 ( )
- ③ 새아버지 ( )
- ④ 새어머니 ( )
- ⑤ 할머니 · 할아버지 ( )
- ⑥ 친척 ( )
- ⑦ 형제자매 ( )
- ⑧ 친구 · 선후배 ( )
- ⑨ 청소년보호자(쉼터, 그룹홈, 일시보호시설, 소년원 등) ( )
- ⑩ 혼자 살고 있다 ( )
- ⑪ 기타 (구체적으로 누구와? \_\_\_\_\_)

7. 부모님의 출신 나라는 어디입니까? (한 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 ① 두 분 모두 한국인 ( )
- ② 두 분 모두 외국인 ( )
- ③ 한 분만 외국인 ( )
- ④ 두 분 모두 북한이탈주민 ( )
- ⑤ 한 분만 북한이탈주민 ( )
- ⑥ 두 분 모두 중국교포 ( )
- ⑦ 한 분만 중국교포 ( )
- ⑧ 모르겠다 ( )

8. 가정의 경제수준은 어느 정도에 해당합니까? (한 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 ① 매우 어려운 편이다 ( )
- ② 어려운 편이다 ( )
- ③ 보통이다 ( )
- ④ 잘 사는 편이다 ( )
- ⑤ 매우 잘 사는 편이다 ( )

9. 국가나 단체에서 경제적으로 어떤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모두 체크하세요.)

- ① 없다 ( )

- ② 기초생계비 지원 ( )
- ③ 의료비 지원 ( )
- ④ 급식비 지원 -( )
- ⑤ 긴급복지지원(가장의 사망, 질병 등의 위급한 상황에서 지원받는 경우) ( )
- ⑥ 기타 ( )
- ⑦ 모르겠다 ( )

10. 현재 부모(혹은 조부모, 친척 등)로부터 물질적 지원(예: 학비, 학원비, 용돈 등)을 어느 정도 받고 있습니까? (한 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 ①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 )
- ② 부족하다 ( )
- ③ 보통이다 ( )
- ④ 받는 편이다 ( )
- ⑤ 충분히 받고 있다 ( )

11. 현재 부모(혹은 조부모, 친척 등)로부터 정서적 지원(예: 고민상담, 대화, 관심, 칭찬 등)을 어느 정도 받고 있습니까? (한 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 ①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 )
- ② 부족하다 ( )
- ③ 보통이다 ( )
- ④ 받는 편이다 ( )
- ⑤ 충분히 받고 있다 ( )

12. 어렵고 힘들 때 도움을 청할 사람이 있습니까? (한 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 ① 없다 ( )
- ② 1명 ( )
- ③ 2-3명 ( )
- ④ 4명 이상 ( )

13. 다음은 청소년을 위한 지원사업 및 기관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에 있는 사업 및 기관에 대해 알고 있는지 여부와 이용경험이 있는지 여부에 체크를 하세요.

항목	알고 있나요?	이용한 적이 있나요?
13-1. 헬프콜 청소년전화 1388	① 안다 ( )	① 있다 ( )
	② 모른다 ( )	② 없다 ( )
13-2. 청소년상담복지센터	① 안다 ( )	① 있다 ( )
	② 모른다 ( )	② 없다 ( )
13-3.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① 안다 ( )	① 있다 ( )
	② 모른다 ( )	② 없다 ( )
13-4. 청소년 쉼터	① 안다 ( )	① 있다 ( )
	② 모른다 ( )	② 없다 ( )

14. 심리상담을 받는다면 어떤 형태의 상담을 원합니까?

- ① 대면 개인상담 (1:1로 직접 만남) ( )
- ② 비대면 실시간 (줌, 화상 등) ( )
- ③ 비대면 비실시간 (이메일, 게시판 등) ( )
- ④ 비대면 전화상담 ( )
- ⑤ 대면 집단상담 (같은 문제를 가진 친구 여럿과 함께 상담) ( )

15. 심리상담을 받는다면 상담에 가장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① 내 이야기를 듣고 이해해줬으면 한다 ( )
- ②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정보를 줬으면 한다 ( )
- ③ 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줬으면 한다 ( )
- ④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한다 ( )

※ 다음은 여러분의 생각을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를 하세요.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6.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0 ( )	1 ( )	2 ( )	3 ( )	4 ( )
17. 나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0 ( )	1 ( )	2 ( )	3 ( )	4 ( )
18.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0 ( )	1 ( )	2 ( )	3 ( )	4 ( )
19. 나는 늘 슬프다.	0 ( )	1 ( )	2 ( )	3 ( )	4 ( )
20. 이유 없이 불안하다.	0 ( )	1 ( )	2 ( )	3 ( )	4 ( )
21. 신경이 날카롭고 예민하다.	0 ( )	1 ( )	2 ( )	3 ( )	4 ( )
22. 손에 땀이 나고 긴장이 될 때가 많다.	0 ( )	1 ( )	2 ( )	3 ( )	4 ( )
23.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다.	0 ( )	1 ( )	2 ( )	3 ( )	4 ( )
24. 다른 사람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욕설부터 한다.	0 ( )	1 ( )	2 ( )	3 ( )	4 ( )
25. 다른 사람과 치고받으며 잘 싸운다.	0 ( )	1 ( )	2 ( )	3 ( )	4 ( )
26. 나는 말보다 주먹이 앞선다.	0 ( )	1 ( )	2 ( )	3 ( )	4 ( )
27. 화가 나면 고함을 지르거나 물건을 집어 던진다.	0 ( )	1 ( )	2 ( )	3 ( )	4 ( )
28. 화를 내는 것(위험이나 폭력)이 원하는 것을 얻는데 더 도움이 된다.	0 ( )	1 ( )	2 ( )	3 ( )	4 ( )
29. 생각 없이 말하거나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	0 ( )	1 ( )	2 ( )	3 ( )	4 ( )
30.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잘 참지 못한다.	0 ( )	1 ( )	2 ( )	3 ( )	4 ( )
31. 조심성이 없어서 실수를 많이 한다.	0 ( )	1 ( )	2 ( )	3 ( )	4 ( )
32. 부모님은 자주 싸우신다.	0 ( )	1 ( )	2 ( )	3 ( )	4 ( )
33. 부모님은 싸우실 때 폭력을 사용한다.	0 ( )	1 ( )	2 ( )	3 ( )	4 ( )
34. 부모님과 나는 서로 대화가 없다.	0 ( )	1 ( )	2 ( )	3 ( )	4 ( )
35. 부모님과 나는 말만 하면 싸우게 된다.	0 ( )	1 ( )	2 ( )	3 ( )	4 ( )
36. 부모님은 나를 좋아하지 않으신다.	0 ( )	1 ( )	2 ( )	3 ( )	4 ( )
37. 부모님은 내가 술이나 담배를 해도 내버려 두신다.	0 ( )	1 ( )	2 ( )	3 ( )	4 ( )
38. 부모님은 내가 외박이나 가출을 해도 신경을 쓰지 않으신다.	0 ( )	1 ( )	2 ( )	3 ( )	4 ( )
39. 부모님은 내가 특별한 이유 없이 학교에 결석해도 뭐라고 하지 않으신다.	0 ( )	1 ( )	2 ( )	3 ( )	4 ( )
40. 나는 좋아하는 과목이 하나도 없다.	0 ( )	1 ( )	2 ( )	3 ( )	4 ( )
41. 선생님과 사이가 좋지 않다.	0 ( )	1 ( )	2 ( )	3 ( )	4 ( )
42. 나는 학교에 좋아하는 친구가 한 명도 없다.	0 ( )	1 ( )	2 ( )	3 ( )	4 ( )
43. 나는 학교가 싫다.	0 ( )	1 ( )	2 ( )	3 ( )	4 ( )
44. 집이나 학교 근처에 술집(성인용 주점) 등 유흥업소가 많다.	0 ( )	1 ( )	2 ( )	3 ( )	4 ( )
45. 우리 동네에는 범죄가 자주 일어난다.	0 ( )	1 ( )	2 ( )	3 ( )	4 ( )
46. 우리 동네에는 청소년들이 술과 담배를 쉽게 살 수 있다.	0 ( )	1 ( )	2 ( )	3 ( )	4 ( )

2025 강릉시청소년생활실태조사

※ 다음은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v표를 하세요.

문항	없다	있다
47. 가족 중에 범죄로 소년원이나 교도소에 갔던 사람이 있다.	0 ( )	1 ( )
48. 가족 중 약물중독이나 알코올중독인 사람이 있다.	0 ( )	1 ( )
49. 가족 중 가출했던 혹은 가출한 사람이 있다.	0 ( )	1 ( )
50. 가까운 친구 중에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술을 마시는 친구가 있다.	0 ( )	1 ( )
51. 가까운 친구 중에 가출한 친구가 있다.	0 ( )	1 ( )
52. 가까운 친구 중에 경찰서나 파출소·지구대에 잡혀갔던 친구가 있다.	0 ( )	1 ( )
53. 가까운 친구 중에 폭력서클에 소속되어 있는 친구가 있다.	0 ( )	1 ( )

※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v표를 하세요.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54. 나는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0 ( )	1 ( )	2 ( )	3 ( )	4 ( )
55. 나는 내가 한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진다.	0 ( )	1 ( )	2 ( )	3 ( )	4 ( )
56. 나는 커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있다.	0 ( )	1 ( )	2 ( )	3 ( )	4 ( )
57.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이유를 생각해 보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0 ( )	1 ( )	2 ( )	3 ( )	4 ( )
58. 내가 마음먹고 노력한다면 지금보다 상황이 나아질 것이다.	0 ( )	1 ( )	2 ( )	3 ( )	4 ( )
59. 우리 가족은 내가 필요로 할 때 도움을 주고 격려해 준다.	0 ( )	1 ( )	2 ( )	3 ( )	4 ( )
60. 우리 가족은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하면 바로 잡아주려고 한다.	0 ( )	1 ( )	2 ( )	3 ( )	4 ( )
61. 부모님은 나를 믿어 주신다.	0 ( )	1 ( )	2 ( )	3 ( )	4 ( )
62.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한 친구가 있다.	0 ( )	1 ( )	2 ( )	3 ( )	4 ( )
63. 즐겁게 어울리는 친구가 있다.	0 ( )	1 ( )	2 ( )	3 ( )	4 ( )
64. 나는 좋아하는 선생님이 있다.	0 ( )	1 ( )	2 ( )	3 ( )	4 ( )
65.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격려나 지도해주는 선생님이 있다.	0 ( )	1 ( )	2 ( )	3 ( )	4 ( )
66. 우리 동네에는 내가 마음 놓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0 ( )	1 ( )	2 ( )	3 ( )	4 ( )
67. 우리 동네에는 의지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시설이 있다.	0 ( )	1 ( )	2 ( )	3 ( )	4 ( )
68. 우리 동네에는 내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여가활동 프로그램이 있다.	0 ( )	1 ( )	2 ( )	3 ( )	4 ( )

※ 다음은 지난 한 달 동안 여러분의 경험을 물어보는 질문들입니다.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의 경험과 일치하는 곳에 √표를 하세요.

문항	전혀 없다	1번	2-3번	주1-2 회	거의 매일
69. 지난 한 달 동안 인터넷이나 스마트폰(게임·채팅 등) 사용으로 인해 타인(부모, 교사 등)과 심한 갈등을 일으킨 적이 있다.	0 ( )	1 ( )	2 ( )	3 ( )	4 ( )
70. 지난 한 달 동안 인터넷이나 스마트폰(게임·채팅 등) 사용으로 인해 계획한 일을 제대로 못한 적이 있다.	0 ( )	1 ( )	2 ( )	3 ( )	4 ( )
71. 지난 한 달 동안 게임이나 채팅(인터넷·스마트폰)을 하루에 3~4시간 이상 한 적이 있다.	0 ( )	1 ( )	2 ( )	3 ( )	4 ( )
72. 지난 한 달 동안 게임이나 채팅(인터넷·스마트폰)을 하느라 일상생활을 못한 적(결석, 지각, 불규칙한 식사 및 수면 등)이 있다.	0 ( )	1 ( )	2 ( )	3 ( )	4 ( )
73. 지난 한 달 동안 술을 마신 적이 있다.	0 ( )	1 ( )	2 ( )	3 ( )	4 ( )
74. 지난 한 달 동안 담배를 피운 적이 있다.	0 ( )	1 ( )	2 ( )	3 ( )	4 ( )
75. 지난 한 달 동안 본드나 부탄가스, 마약류 등을 사용해 본 적이 있다.	0 ( )	1 ( )	2 ( )	3 ( )	4 ( )
76. 지난 한 달 동안 돈(사이버머니)을 걸고 하는 온라인 게임(고스톱, 포커, 경마 등)을 한 적이 있다.	0 ( )	1 ( )	2 ( )	3 ( )	4 ( )

2025 강릉시청소년생활실태조사

※ 다음은 지난 1년 동안 여러분의 경험을 물어보는 질문들입니다.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의 경험과 일치하는 곳에 v표를 하세요.

문항	전혀 없다	1번	2-3번	월1-2 회	주1-2회 이상
77. 지난 1년 동안 친구로부터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	0 ( )	1 ( )	2 ( )	3 ( )	4 ( )
78. 지난 1년 동안 친구로부터 언어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	0 ( )	1 ( )	2 ( )	3 ( )	4 ( )
79. 지난 1년 동안 친구로부터 따돌림이나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	0 ( )	1 ( )	2 ( )	3 ( )	4 ( )
80. 지난 1년 동안 친구나 선후배에게 돈이나 물건을 강제로 빼앗긴 적이 있다.	0 ( )	1 ( )	2 ( )	3 ( )	4 ( )
81. 지난 1년 동안 사이버폭력(SNS, 카톡 등에서의 따돌림이나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	0 ( )	1 ( )	2 ( )	3 ( )	4 ( )
82. 지난 1년 동안 친구를 폭행한 적이 있다.	0 ( )	1 ( )	2 ( )	3 ( )	4 ( )
83. 지난 1년 동안 친구에게 언어폭력을 한 적이 있다.	0 ( )	1 ( )	2 ( )	3 ( )	4 ( )
84. 지난 1년 동안 친구를 괴롭히거나 따돌린 적이 있다.	0 ( )	1 ( )	2 ( )	3 ( )	4 ( )
85. 지난 1년 동안 친구나 선후배의 돈이나 물건을 빼앗은 적이 있다.	0 ( )	1 ( )	2 ( )	3 ( )	4 ( )

※ 다음은 지난 1년 동안 여러분의 경험을 물어보는 질문들입니다.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의 경험과 일치하는 곳에 v표를 하세요.

문항	전혀 없다	1번	2-3번	월1-2 회	주1-2회 이상
86. 지난 1년 동안 사이버폭력(SNS, 카톡 등에서의 따돌림이나 괴롭힘)을 한 적이 있다.	0 ( )	1 ( )	2 ( )	3 ( )	4 ( )
87. 지난 1년 동안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을 강제로 빼앗은 적이 있다.	0 ( )	1 ( )	2 ( )	3 ( )	4 ( )
88. 지난 1년 동안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을 훔친 적이 있다.	0 ( )	1 ( )	2 ( )	3 ( )	4 ( )
89. 지난 1년 동안 사건에 관련되어 경찰서나 법원에 불려간 적이 있다.	0 ( )	1 ( )	2 ( )	3 ( )	4 ( )
90. 지난 1년 동안 부모님(또는 보호자)으로부터 심하게 맞거나 신체적 위협을 느낀 적이 있다.	0 ( )	1 ( )	2 ( )	3 ( )	4 ( )
91. 지난 1년 동안 부모님(또는 보호자)은 화가 나서 나를 집 밖으로 내쫓은 적이 있다.	0 ( )	1 ( )	2 ( )	3 ( )	4 ( )
92. 지난 1년 동안 부모(또는 보호자)로부터 모욕감을 느낄 정도의 심한 말이나 욕을 들은 적이 있다.	0 ( )	1 ( )	2 ( )	3 ( )	4 ( )
93. 지난 1년 동안 부모님(또는 보호자)이 아무 이유 없이 하루 이상 나를 굶긴 적이 있다.	0 ( )	1 ( )	2 ( )	3 ( )	4 ( )
94. 지난 1년 동안 부모님(또는 보호자)은 내가 아플 때에도 내버려 둔 적이 있다.	0 ( )	1 ( )	2 ( )	3 ( )	4 ( )
95. 지난 1년 동안 자살에 대해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	0 ( )	1 ( )	2 ( )	3 ( )	4 ( )
96. 지난 1년 동안 자살을 계획해 본 적이 있다.	0 ( )	1 ( )	2 ( )	3 ( )	4 ( )
97. 지난 1년 동안 자살을 시도해 본 경험이 있다.	0 ( )	1 ( )	2 ( )	3 ( )	4 ( )
98. 지난 1년 동안 무단으로 결석한 적이 있다.	0 ( )	1 ( )	2 ( )	3 ( )	4 ( )
99. 지난 1년 동안 성매매 사이트에 접속한 적이 있다.	0 ( )	1 ( )	2 ( )	3 ( )	4 ( )
100. 지난 1년 동안 성매매 유혹을 느끼거나 권유를 받은 적이 있다.	0 ( )	1 ( )	2 ( )	3 ( )	4 ( )
101. 지난 1년 동안 성매매를 한 적이 있다.	0 ( )	1 ( )	2 ( )	3 ( )	4 ( )
102. 지난 1년 동안 성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	0 ( )	1 ( )	2 ( )	3 ( )	4 ( )
103. 지난 1년 동안 성폭력 위협을 느낀 적이 있다.	0 ( )	1 ( )	2 ( )	3 ( )	4 ( )
104. 지난 1년 동안 성폭력을 시도하거나 한 적이 있다.	0 ( )	1 ( )	2 ( )	3 ( )	4 ( )

2025 강릉시청소년생활실태조사

※ 다음 문항에 대하여 v표를 하세요.

문항	아니요	그렇다
105. 원치 않는 임신이나 출산을 경험한 적이 있다.	0 ( )	1 ( )
106.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하지 못하면 안절부절 못하고 초조해진다.	0 ( )	1 ( )
107. 지금 가출한 상태이다.	0 ( )	1 ( )
108. 가출팸에서 생활해 본 적이 있다.	0 ( )	1 ( )
109. 학업중단 숙려제 상담(학업중단 전 받는 상담)을 받고 있거나 받은 적이 있다.	0 ( )	1 ( )

※ 110. 지난 1년 동안 가출 경험이 있습니까?

문항	① 없다	② 1회	③ 2-3회	④ 4-5회	⑤ 6회 이상
110. 지난 1년 동안 가출 경험이 있습니까?	( )	( )	( )	( )	( )

※ 110-1. 한번 가출하면 보통 며칠 정도 집밖에서 생활합니까?

문항	① 1-2일	② 3-5일	③ 6-9일	④ 10-30일	⑤ 한 달 이상
110-1. 한번 가출하면 보통 며칠 정도 집밖에서 생활합니까?	( )	( )	( )	( )	( )

111. 아르바이트나 직업훈련기관, 혹은 직장생활 경험이 있습니까?

문항	① 없다	② 아르바이트 경험	③ 직업훈련기관 경험	④ 직장생활 경험
111. 아르바이트나 직업훈련기관, 혹은 직장생활 경험이 있습니까?	( )	( )	( )	( )

※ 다음은 자해 행동에 대한 문항입니다. 의도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훼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행동들을 한 적이 있는지 해당하는 곳에 v표를 하세요.

문항	전혀 없음	1회	2회	3회	4회	5회 이상
112. 칼이나 날카로운 물건으로 몸에 상처를 냈다.	0 ( )	1 ( )	2 ( )	3 ( )	4 ( )	5 ( )
113. 고의로 나 자신을 때렸다.	0 ( )	1 ( )	2 ( )	3 ( )	4 ( )	5 ( )
114. 몸에 있는 상처를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뜯었다.	0 ( )	1 ( )	2 ( )	3 ( )	4 ( )	5 ( )
115. 담배나 성냥 등으로 내 몸에 화상을 입혔다.	0 ( )	1 ( )	2 ( )	3 ( )	4 ( )	5 ( )
116. 상처가 날 정도로 피부를 긁거나 꼬집었다.	0 ( )	1 ( )	2 ( )	3 ( )	4 ( )	5 ( )
117. 벽이나 책상에 머리를 부딪쳤다.	0 ( )	1 ( )	2 ( )	3 ( )	4 ( )	5 ( )
118. 피부에 글자나 상징 같은 것을 새겼다.	0 ( )	1 ( )	2 ( )	3 ( )	4 ( )	5 ( )

- 수고 많으셨습니다. -